

현안과제연구

Issue Report

2015. 08. 18

CONTENTS

1. 연구의 개요
2. 현황 및 여건분석
3. 마리나항만 개발사례
4.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방안

충남 마리나항만 조성 방향 및 기본구상

김경태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kimkt@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마리나 대상지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해 개발 방향을 정하는데 있음.

요 약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마리나 대상지별 차별화된 개발방향 마련이 필요함.
- 마리나 대상지 항만별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음.
 - 보령시 무창포 : 어촌체험형 마리나(어항+마리나+어촌체험+편의시설 등) 어촌 오락형 마리나항만
 - 보령시 원산도 : 해양레저체험형 마리나(마리나+해양레저체험+편의시설 등) 복합해양레저체험형
 - 서산시 창리 : 해양레저교육형 마리나(마리나+해양레저교육+어촌체험 등) 복합해양레저교육형
 - 당진시 장고항 : 거점마리나 배후 시설보급형 마리나(거점마리나 배후지역+해양레저교육+선박수리 등)
 - 당진시 왜목항 : 거점마리나 복합마리나(마리나+체육 및 숙박+리조트 등) 위킹형 복합마리나
 - 서천군 홍원항 : 가족레저휴양형 마리나(마리나+해양생태+놀이시설 등) 가족레저휴양형
 - 태안군 안흥항 : 해양레저스포츠형 마리나(마리나+해양휴양+바다낚시 등) 해양레저스포츠형
 - 서산시 삼길포 : 어촌마리나역 어촌체험 해양관광형(마리나+해양레저+어촌체험+해양관광 등) 소규모 해양레저휴양형
 - 홍성군 남당리 : 복합다기능어항(수산물먹거리 체험+마리나+해양레저 등) 복합다기능 해양레저형
 - 보령시 보령요트경기장 : 가족단위 요트교육체험형(요트교육+해양레저체험+요트대회개최 등) 요트교육체험형

충남 마리나 항만 조성 방향 및 기본구상

- 목 차 -

| | |
|----------------------------|----|
| 1. 연구의 개요..... | 3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
| 2) 연구의 목적..... | 3 |
| 2. 마리나항만 개발 현황 및 여건분석..... | 4 |
| 1) 국내 마리나 항만 여건분석..... | 4 |
| 2) 충남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의 개요..... | 11 |
| 3) 관련 정책분석..... | 13 |
| 4) 동호회 및 관련단체..... | 17 |
| 5) 시사점..... | 21 |
| 3. 마리나항만 개발 사례..... | 22 |
| 1) 국내 주요 마리나항만 운영사례..... | 22 |
| 2) 국외 마리나 개발 사례..... | 27 |
| 3) 종합분석..... | 34 |
| 4.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 방안..... | 35 |
| 1) 목표 및 추진과제..... | 35 |
| 2) 기본방향..... | 36 |
| 3) 마리나별 개발방안..... | 36 |
| 4) 활성화방안..... | 67 |
| 5) 향후 추진과제..... | 70 |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최근 들어 여가시간 증대와 관광형태 다양화 그리고 연안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해양관광·레저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발표에 따라 해양레저보트산업 및 마리나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해양수산부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산업과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0년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2010~2019년)을 수립, 고시하였으며, 기본계획 내 46개 마리나 가운데 충청남도에는 석문, 오천, 홍원, 보령 4개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2015년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거점마리나 1개(왜목), 마리나 6개소(서산 창리, 당진 장고항, 보령 원산도·무창포, 서천 홍원, 태안 안흥)이 포함됨

(2) 연구의 필요성

-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충남 왜목이 거점마리나 항만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고 6개 지역이 포함되었지만 아직 충남의 마리나 항만의 개발 방안의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충남 마리나 개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늦은편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충남이 지닌 해양레저 잠재력과 주변 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마리나 항만별 개발 방안 마련과 충남 전체 입장에서 개발해야되는 방향 설정을 통해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충남 마리나 항만 개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되는 있는 충남 지역 마리나 항만을 대상으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충남의 마리아 여건 현황, 주변 지역 마리아 개발 현황을 통해 충남 마리아 항만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임

2. 마리아 항만 개발 현황 및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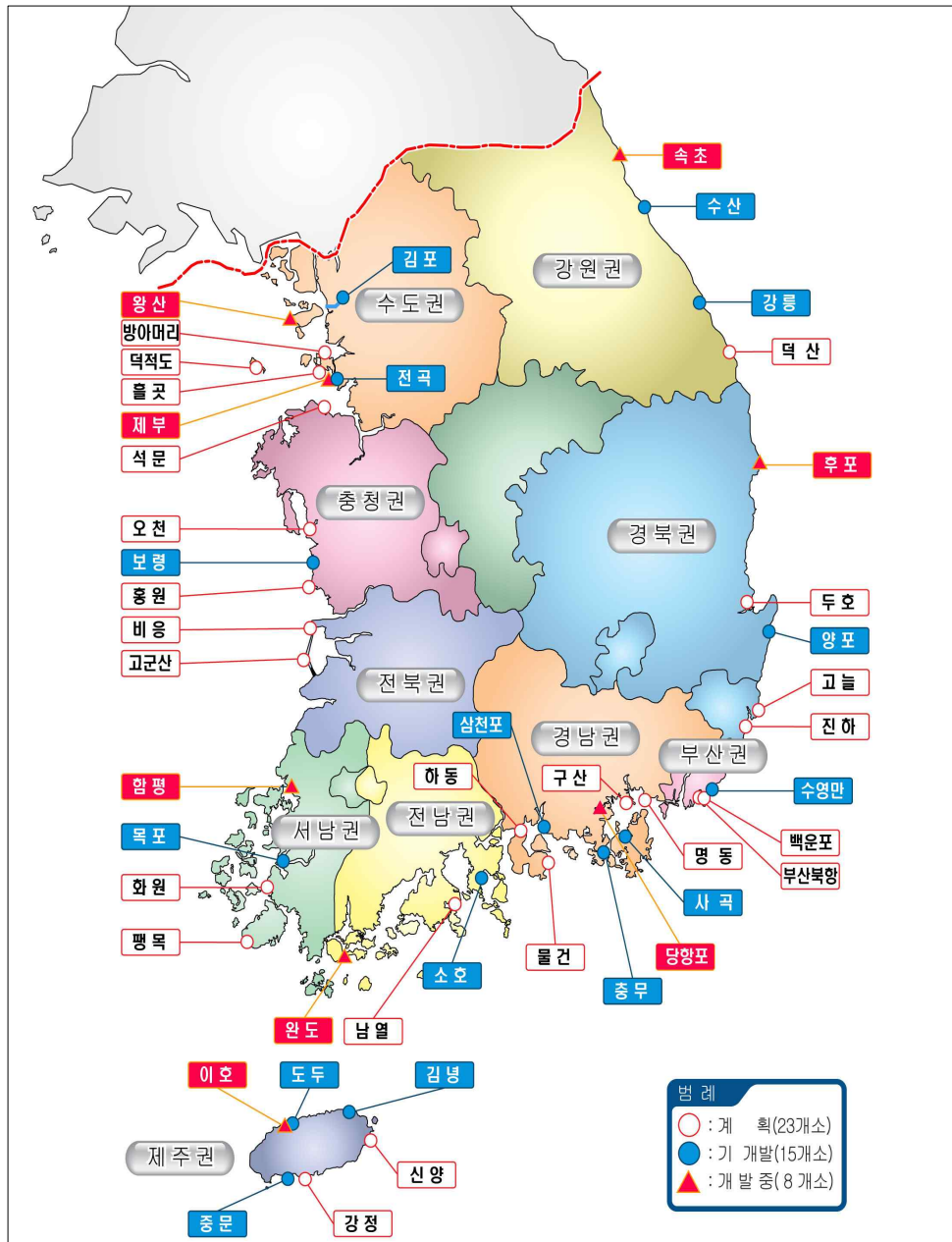
1) 국내 마리아항만 여건분석

(1)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수립

가. 전국 마리아항만 대상지

- 2010년 1월 고시된 제1차 마리아항만기본계획(2010~2019년) 상의 전국 마리아항만 대상지는 총 43개소
 - 수도권(5개소) : 왕산, 방아머리, 제부, 흘곶, 전곡
 - 충청권(4개소) : 석문, 오천, 홍원, 보령
 - 전북권(2개소) : 고군산, 비응
 - 서남권(4개소) : 화원, 팽목, 목포, 함평
 - 전남권(3개소) : 완도, 남열, 소호
 - 경남권(8개소) : 구산, 당항포, 물건, 하동, 명동, 삼천포, 사곡, 충무
 - 부산권(3개소) : 부산북항, 수영만, 백운포
 - 경북권(5개소) : 두호, 후포, 고늘, 진하, 양포
 - 강원권(4개소) : 속초, 덕산, 강릉, 수산
 - 제주권(5개소) : 강정, 김녕, 도두, 중문, 이호
- 이후 3개의 마리아항만이 추가 반영되어 2014년 4월 현재, 총 46개소
 - 김포 마리아항만 : 2011년 1월 6일(김포터미널 내 마리아항만구역)
 - 덕적도 마리아항만 : 2011년 11월 18일
 - 신양 마리아항만 : 2012년 12월 14일
- 제1차 마리아항만기본계획(2010~2019년) 상의 46개 마리아가 모두 완공된다면 전체 해양레저선박 수용규모는 약 5,800척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그림 5] 전국 마리아나항만 위치도 (2014년 4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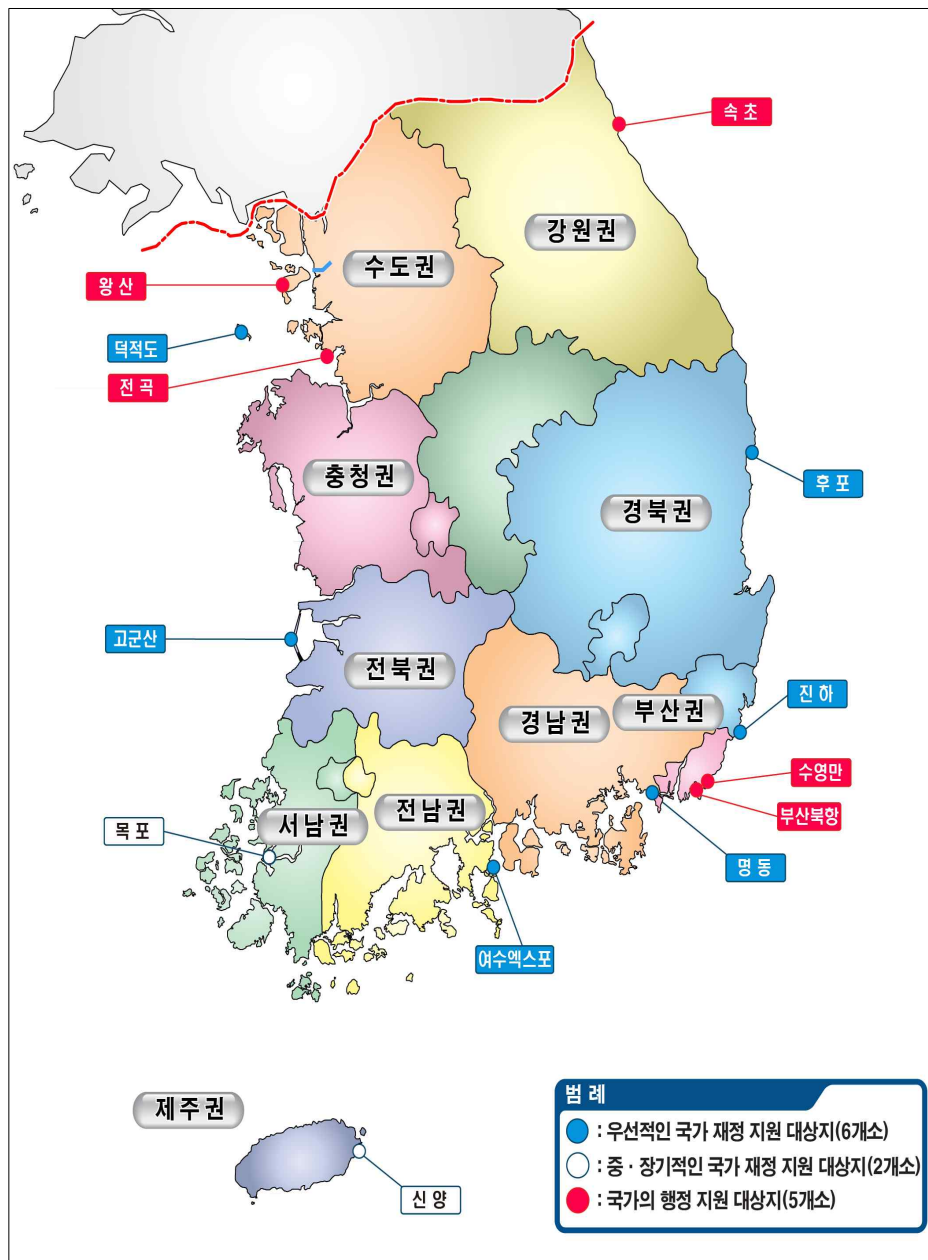


나. 거점형 마리아나항만 대상지 선정

- 한편 대부분 마리아나가 단순 계류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국제수준의 종합서비스를 갖춘 마리아나항만은 전무하여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마리아나 교류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해양관광산업, 요·보트의 제작·정비·대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2년 11~12월에 걸쳐서 분야별 전문가의 평가(2012년 11월, 2차례)와 연구기관의 검토(2012년 12월)를 거쳐 13개소를 '거점형 마린항만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민자사업 진행여부, 기반시설 조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13년 2월에 6개소를 '국가지원 거점형 마린항만 대상지'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그림 6] 거점형 마린항만 대상지 위치도



(2)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가. 개요

- 개발 목표연도 : 2015년 ~ 2019년
- 마리나항만구역 : 6개소
 - 김포터미널, 제부, 목포, 충무, 중문, 왕산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 58개소
 - 수도권(8개소) : 전곡, 덕적도, 서울, 인천, 시화호, 영종, 흘곶, 방아머리
 - 충청권(7개소) :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
 - 전북권(2개소) : 고군산, 비응
 - 전남권(10개소) : 목포, 소호, 여수엑스포, 웅천, 화원, 계마, 진도, 완도, 광양, 남열
 - 경남권(8개소) : 충무, 삼천포, 명동, 당항포, 지세포, 동환, 구산, 하동
 - 부울권(8개소) : 부산북항, 진하, 수영만, 운촌, 고늘, 백운포, 동암, 다대포
 - 경북권(5개소) : 양포, 후포, 두호, 감포, 강구
 - 강원권(4개소) : 수산, 강릉, 속초, 덕산
 - 제주권(6개소) : 김녕, 도두, 이호, 신양, 화순, 강정

나. 추진경위

- 2010. 1.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고시(왕산, 방아머리, 제부, 흘곶, 전곡, 홍원 등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43개소 지정)
- 2011. 1.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고시(김포터미널마리나항만구역 지정)
- 2011. 11.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덕적도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추가)
- 2012. 12.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신양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추가)
- 2012. 12.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고시(제부마리나항만구역 지정)
- 2014. 6.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고시(목포마리나항만구역 지정)

- 2014. 6. : 마리아항만구역 지정 고시(충무마리아항만구역 지정)
- 2015. 1. :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덕적도, 고군산, 명동, 진하, 후포마리아항만 예정구역 5개소 변경, 여수엑스포마리아항만 예정구역 추가)
- 2015. 3. : 마리아항만구역 지정 고시(중문마리아항만구역 지정)

(3) 주요내용

① 마리아항만 중·장기 정책방향 정립

가) 마리아항만 민자유치 촉진 제약

-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은 개발유형과 위치, 면적, 기능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마리아사업자가 투자를 위한 위치조정 등 부득이한 계획의 변동요인 발생 시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기간이 장기화 됨.
- 따라서, 기존 마리아항만법의 정비를 통하여 예정구역의 변경, 사업규모, 사업승인, 사업추진 절차 부문을 개정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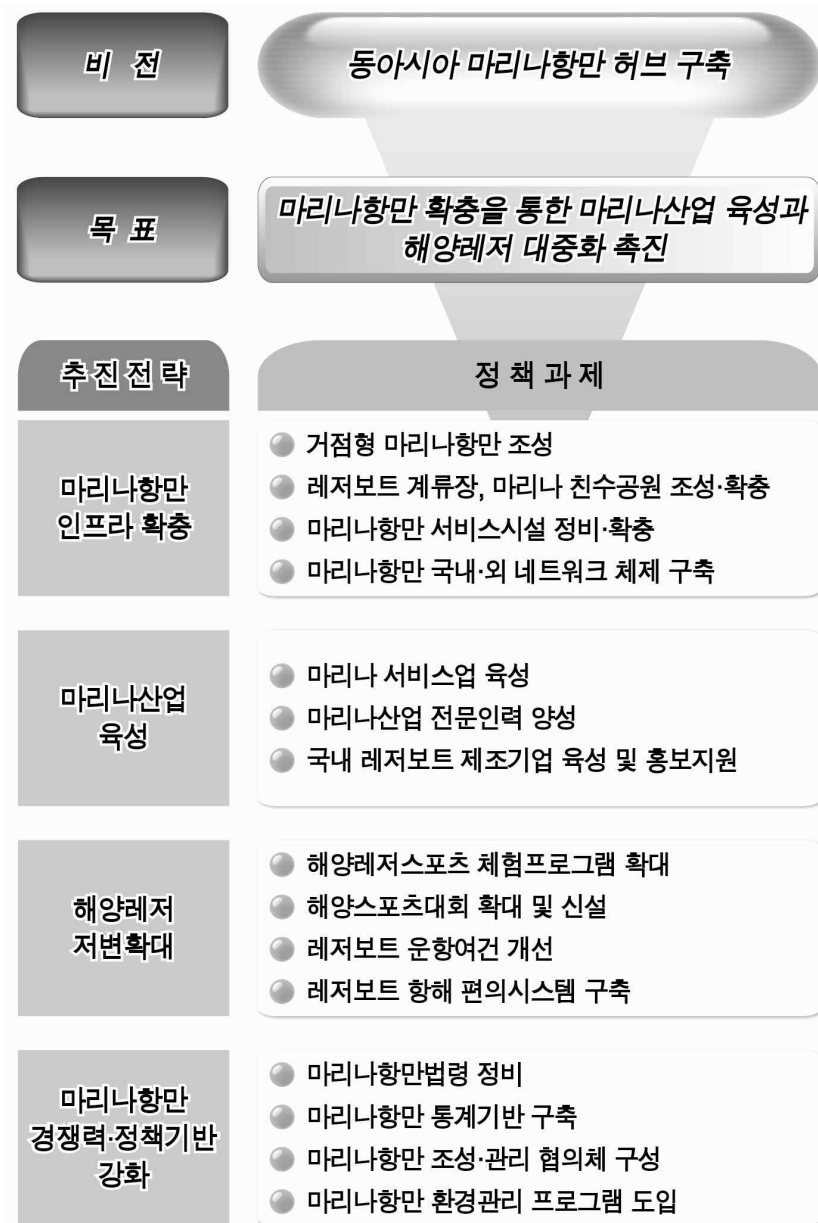
나) 마리아항만 개발체계의 일원화

- 마리아항만법 이외에 어항 내 요트계류시설 조성, 연안지역 내 수상레저사업장, 요트장, 유도선사업장 등 유사 형태로 사업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마리아항만법의 실효성 제약
- 따라서, 마리아항만 시설의 조성은 마리아항만법을 중심으로 한 마리아항만 개발체계를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지자체간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함.

다) 마리아항만 조성정책의 개선방향

-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은 전국 마리아항만의 개발동향 및 수요와 공급, 마리아항만 개발권역의 설정, 마리아항만개발 권역별 기본방향 등 마리아항만 조성의 기본방향을 정립해야 함.
- 마리아항만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개발수요의 확대와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유도함.

라) 마리나항만 중·장기 정책 비전과 목표



② 마리나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

- 마리나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구축, 마리나항만법 내 마리나 관련 운항, 임대, 정비 관련 서비스업 신설, 업등록과 관련된 제반 규정 정비와 마리나산업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 등을 통한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함.

③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가. 마리아항만구역 지정·변경

-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에서 김포터미널, 제부, 목포, 충무, 중문 총 5개소를 마리아항만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기 완공된 왕산을 추가하여 김포터미널, 왕산, 제부, 목포, 충무, 중문 총 6개소를 마리아항만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또한, 중문마리아항만구역을 변경하였음.

나. 마리아항만 예정구역 선정

- 기 수립된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전국 44개소 마리아항만 예정구역 및 수요조사 대상지중 신규 반영이 필요한 마리아항만 예정구역 후보지를 마리아항만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전국 9개 권역 58개소의 마리아항만 예정구역을 최종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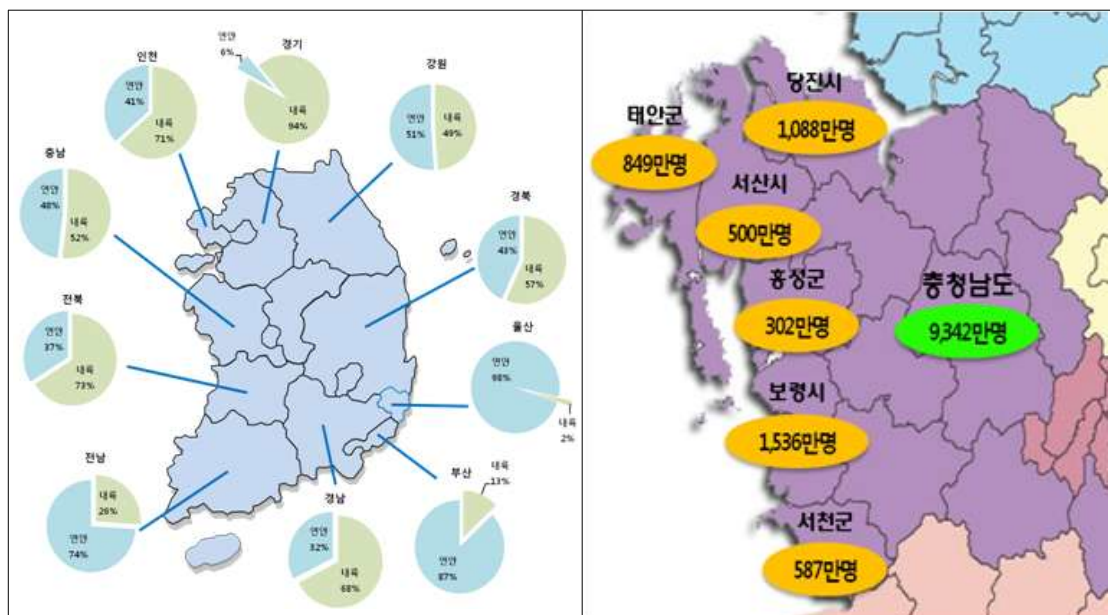
다. 마리아항만 예정구역 설정방식 변경

-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에서는 마리아항만 예정구역 대상지별 입지 및 개발규모(선석수, 개발면적)를 시행령으로 제한하여 마리아항만 개발사업 추진 시 권역내에서 마리아항만 대상지의 입지변경, 개발규모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본계획을 수시로 변경, 승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됨.
- 이에 민간투자 의향에 따른 마리아항만의 규모, 입지, 시설형태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마리아항만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번 수정계획에서는 계획지점의 육역접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마리아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여기서, 적용한 반경 500m의 근거는 최근 완공한 300척 규모의 왕산마리아항만의 해상규모를 롤모델로하여 해상 500m를 준용하였으며, 육지측은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라 연안육역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므로 육상 500m를 적용하였음.

2) 충청남도 해양관광 및 레저활동의 개요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관광규모는 약 857,269천명이며, 이 가운데 연안지역을 찾는 관광객 규모는 약 49.7%인 425,895천명에 달한다.
- 한편 충청남도의 관광시장 규모는 연안 6개 시군이 내륙보다 약간 많은 전체의 약 52%인 48,620천명으로 나타났다.
- 연안지역 중에서는 보령시(연안관광객의 32%), 당진시(22%) 그리고 태안군(17%)의 순으로 방문객이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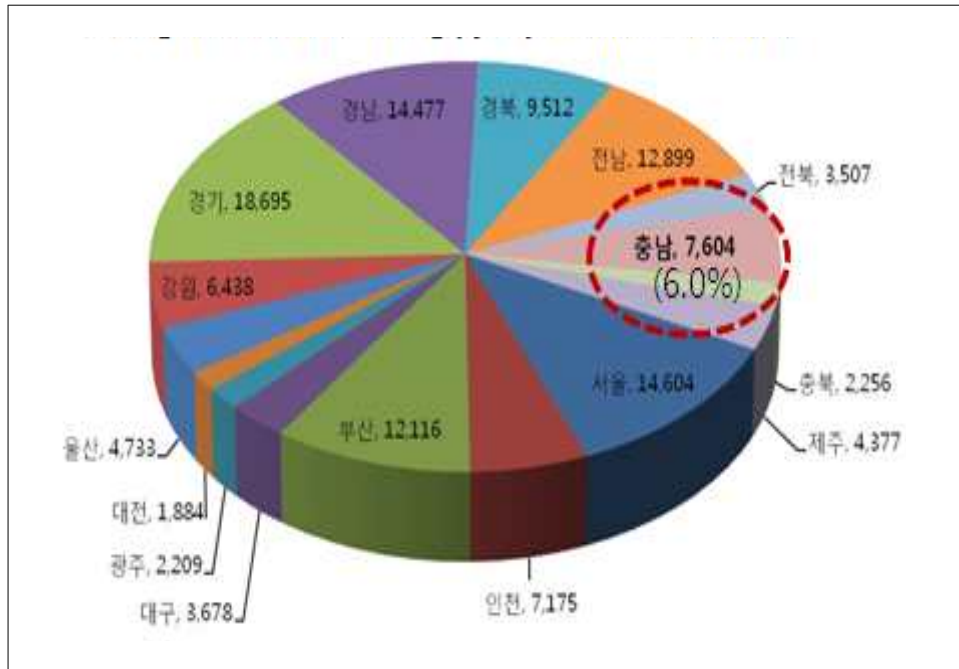
[그림 7] 우리나라 및 충청남도 관광객 규모(201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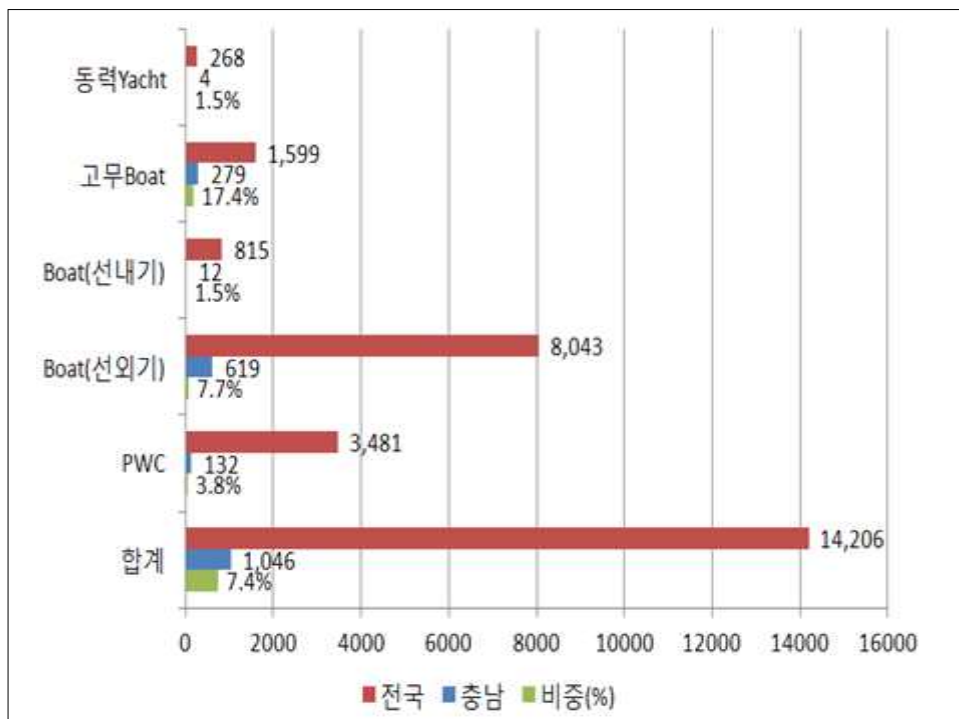
- 충남은 인구와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할 때 해양레저선박을 이용한 Outdoor 활동은 다소 저조한 편으로 판단되며, 서해안의 특성상 간만차가 크기 때문에 Keel을 갖는 요트 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심에서도 즐기기 용이한 모터보트활동이 발달해 있다.
- 또한 큰 수심을 요구하는 대형 모터보트인 선내기 보다는 선외기가 많으며 특히 흘수가 낮고 운반이 간편한 고무보트는 타 시도에 비하여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 한편 적지 않은 보관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마리나 내 대상선박인 동력요트, 모터보트(선내기, 선외기) 비중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데 2013년 등록레저선박 기준으로 전국 연안에 9,126척이 있는데 충남지역에서는 약 7.4%인 635척이 활동하고 있다.

[그림 8] 수상레저 면허취득현황 (2013년 말 기준, 누계치)



[그림 9] 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2013년 말 기준)



3) 관련 정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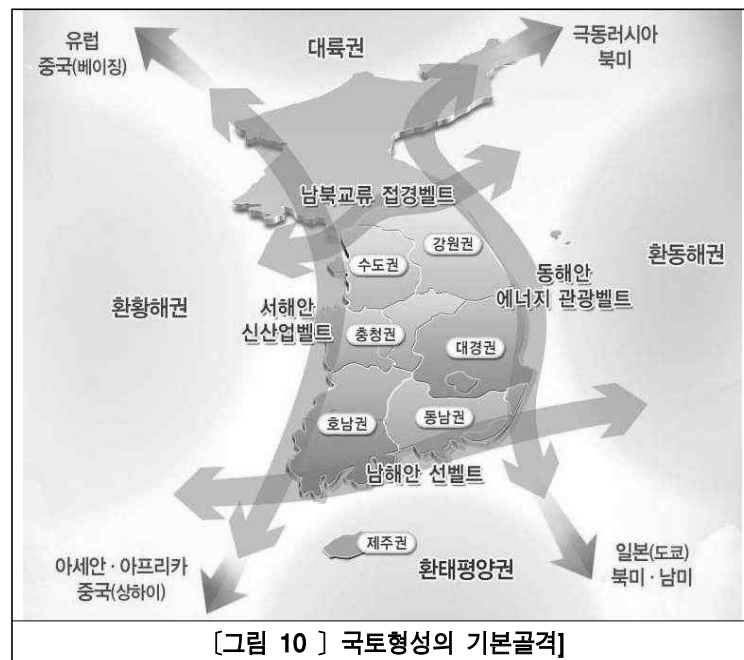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국토해양부, 2011)

○ 계획의 성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은 현행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각종 공간계획의 기본이 되며, 각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 광역경제권 계획 등은 본 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1년~2020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아시아로 확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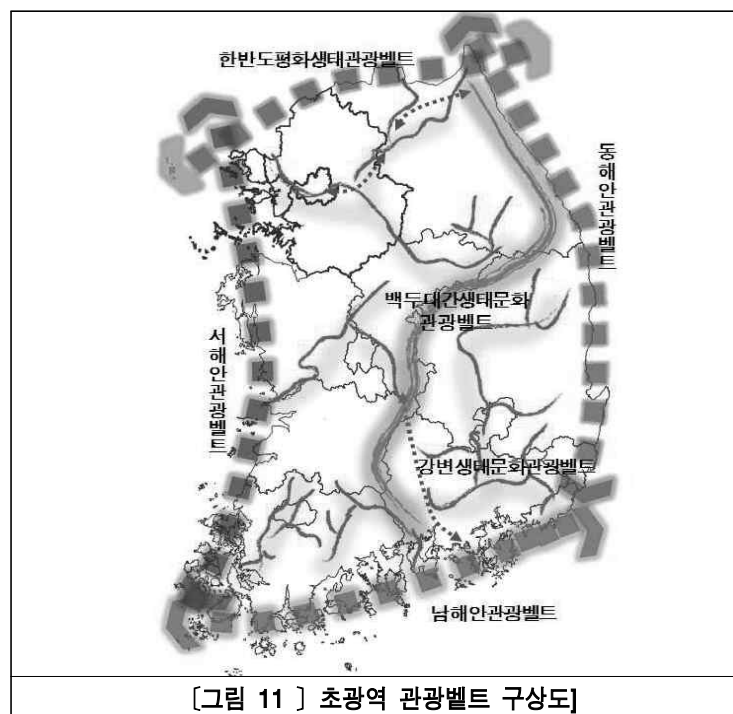


○ 추진전략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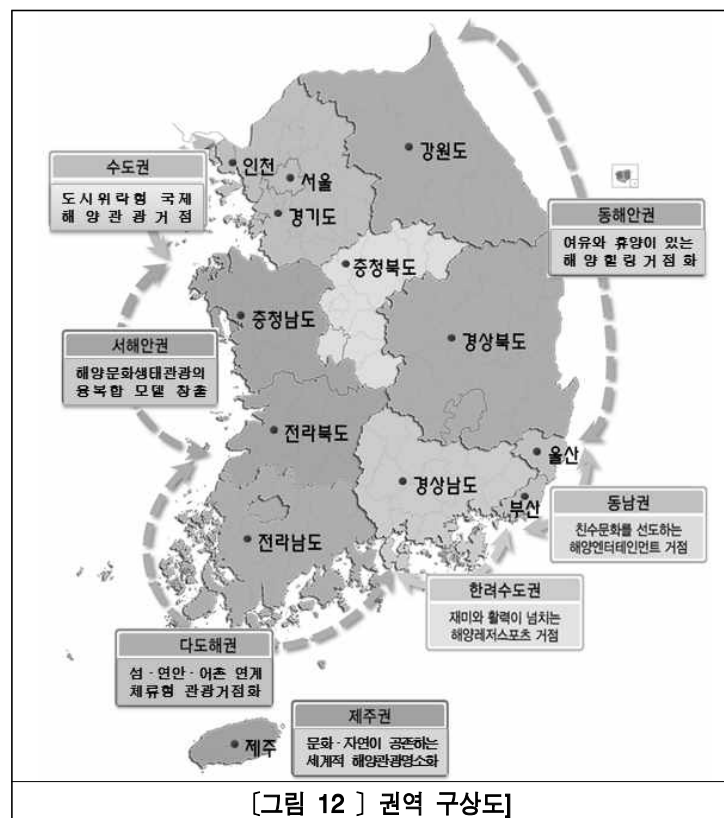
(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문화체육관광부, 2011)

- 비전
 -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 목표
 - 한국 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 개발전략
 -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 효율화
 -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년)(해양수산부, 2014)

- 비전
 -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
- 목표
 -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
- 전략과제
 - 휴식과 회복이 있는 행복한 바다관광
 - 체험과 학습이 있는 즐거운 바다관광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아름다운 바다관광
 - 생활 속 이야기가 있는 정겨운 바다관광
 -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바다관광



(4)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12~2020년)(충청남도, 2012)

○ 계획의 기초 및 목표

-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중심으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본 계획의 기초로 설정
- 균형있는 지역발전, 내실있는 산업경제, 활력있는 농어촌, 함께하는 교육·복지, 매력적인 문화·환경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

○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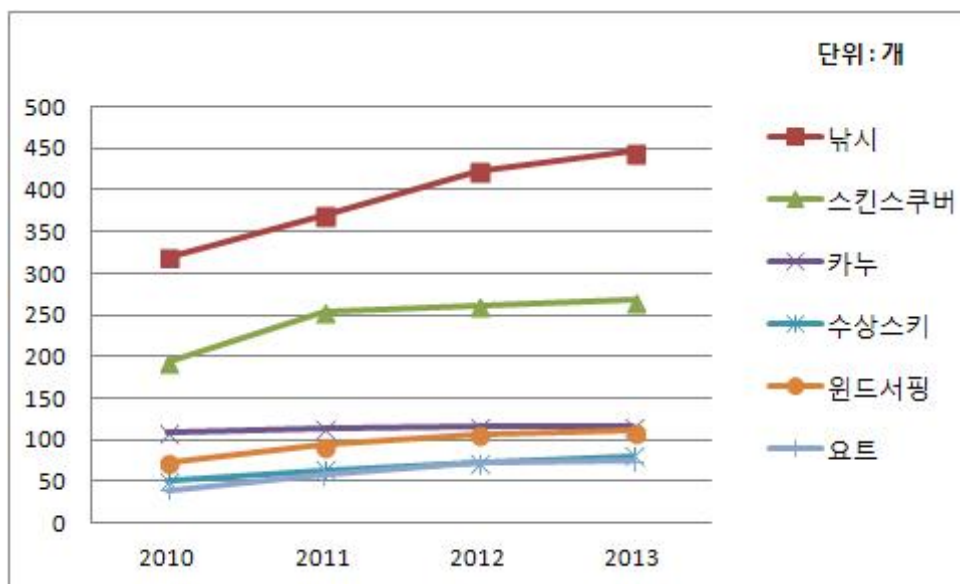
- 살기좋은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
- 순환과 공생의 지역경제 육성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
- 사동팔달의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
- 근심없는 주거·복지·평생교육 실현
- 안정적·창조적인 지역자원의 활용 및 관리
-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관리

4) 동호회 및 관련단체

(1) 동호회 현황

-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동호회 현황은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회 수와 동호인 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음
-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국내 생활체육동호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7개 종목의 동호회 수는 89,499개임(2013년 12월 기준)
- 이 중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종목인 낚시, 스킨스쿠버, 카누, 수상스키, 윈드서핑, 요트의 동호회 수는 1,117개로, 이는 전체 동호회 수의 1.25%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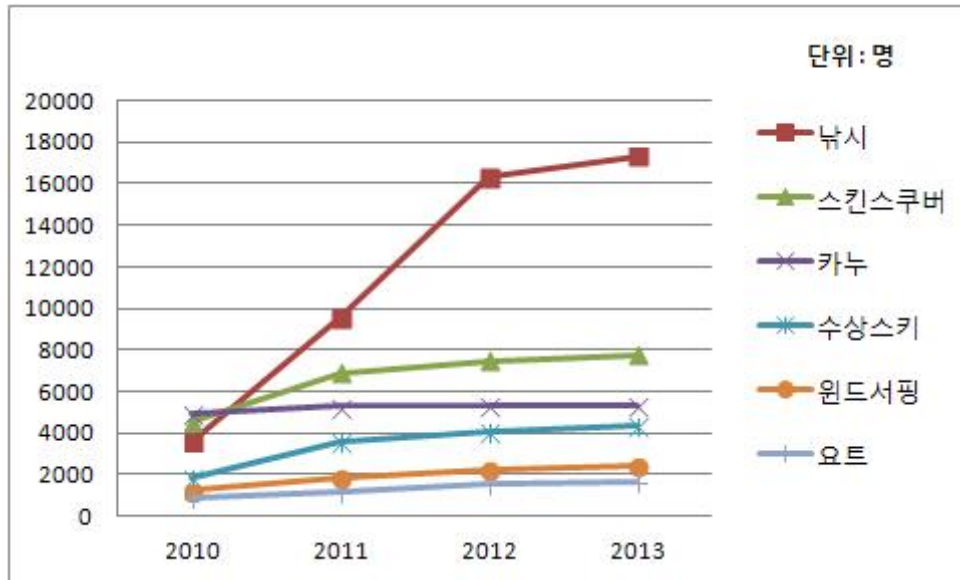
[그림 13] 해양레저스포츠 종목별 동호회 수 변화추이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

- 국민생활체육회에 등록된 국내 생활체육동호회 회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2월 기준 전체 117개 종목의 회원수는 4백만 명임
- 이 중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종목인 낚시, 스킨스쿠버, 카누, 수상스키, 윈드서핑, 요트의 회원수는 4만 명으로, 이는 전체 동호인 수의 1%에 해당함

[그림 14]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 수 변화추이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al.or.kr)

(2)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정부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등을 대행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수상레저기구,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수상레저 활동 관련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창립되었으며 현재 총 3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사업내용

-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 조종면허 시험 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스템 개발
-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안전점검의 대행
- 수상레저 사업자 및 레저기구 사용자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
- 교육 및 관련 장비, 교재의 개발
-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는 업무
- 수상레저관련 보험, 공제사업 및 사고대응을 네트워크 구성 운영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제작 및 관리업무대행

나.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2012년 3월 설립된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해양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양산업 관련 정책의 기획, 마리나 시설 건립 운영에의 기여, 해양레포츠 장비 및 서비스 기업 창업 선도,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사업내용

-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발전 대안 탐색 연구 및 정기포럼 개최
- 해양레저스포츠 포럼지 발간 및 관련정보 제공
- 해양레저스포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체 실무자 전문화 연수 사업
- 관련학과 대학생 산업현장 참여 지원 활동
- 해양레저스포츠관련 국제회의 및 축제 유치

다. 한국해양재단

- 한국해양재단은 국민의 해양의식을 일깨워 해양국가로서 산업과 기술 등 우리의 해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해상왕 장보고기념 사업회와의 유사 기능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해양레저와 관광 부분에 있어서 삶 속의 바다, 관광산업과 해양 해양레저와 스포츠, 전국 해수욕장정보, 수상레저종합정보, 가보고 싶은 섬, 마리나항만 현황, 등대와 바다, 해안누리길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www.changpogo.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주요사업내용

-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
- 해양관련 과학기술 진흥 및 학술연구사업
- 해양스포츠 레저관광 산업육성
-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 사업
- 해양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라. 한국마리나산업협회

- 한국마리나산업협회는 국내 마리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수상, 해양 레포츠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체계적인 산업기반과 시장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요사업내용

-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 마리나 포털사이트 구축
-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보급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구축
- 마리나서비스업 직종개발 및 직업교육원 운영
- 관광 클러스터 개발
- 중산층 진입을 위한 회원권 제도 도입지원

마. 대한요트협회

- 대한요트협회는 요트 관련 단체를 통합 대표하며 요트 경기의 보급과 요트 경기의 발전을 꾀하여 스포츠정신을 배양하고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사업내용

- 대한체육회에 가입하며,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요트연맹에 가입
- 한국의 요트발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결정
- 요트경기에 관한 대한체육회의 자문, 기타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 산하 가맹단체와 지부의 육성지도 및 관리 감독
- 국제적인 요트경기대회 및 회의 참가와 교류
- 전국 규모의 각종 요트경기대회 개최

5) 시사점

- 해양수산부의 재출범에 따라 해양레저분야 정책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국정과제에 마리나와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이 포함되면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음
- 또한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여가 트렌드가 보다 다원화되고 다양한 레저문화를 체험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한편, 해양레저스포츠정책은 마리나시설 개발, 바다낚시 공간조성, 요트대회 개최나 레저체험행사 지원 등의 형태로 해양수산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 영역에 따라 추진되어 왔지만, 사업범위나 기본 현황, 근거 법령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국민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파악도 해양공간이나 해양을 매개로 하는 참여활동은 기초적인 현황이나 문제점 등도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3. 마리나항만 개발 사례

1) 국내 주요 마리나항만 운영사례

(1) 수영만 마리나(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 1986년 개최된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중 요트경기를 목적으로 1986년 4월 30일 개장한 국내 최초의 전용시설로서 지금까지는 국내 최대의 계류 및 보관능력을 갖고 있음
- 해상계류능력 293척, 육상보관능력 155척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공공체육시설)과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마리나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총 27명이지만, 마리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여하는 인력이 매우 적은 편임
- 해상계류와 육상보관 서비스 그리고 부지 내 공간 임대 서비스 등이 가능하나, 수영만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계류와 보관 그리고 일부 수리기능만을 수행 중에 있음

[그림 15]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전경 및 해상계류 현황



(2) 통영 마리아(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 내)

- 통영 마리아는 1997년 개발되었으며 92척의 해상계류, 15척의 육상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음(〈그림 2-4〉 위 그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요트장업)과 수상레저안전법, 유선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마리아 운영인력은 총 4명이며 계류 및 보관은 물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민간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상기 시설과는 별도로 2013년 국가에서 개발하고 경남에서 운영하는 해상계류능력 30척 규모의 공공시설이 있다(〈그림 2-4〉 아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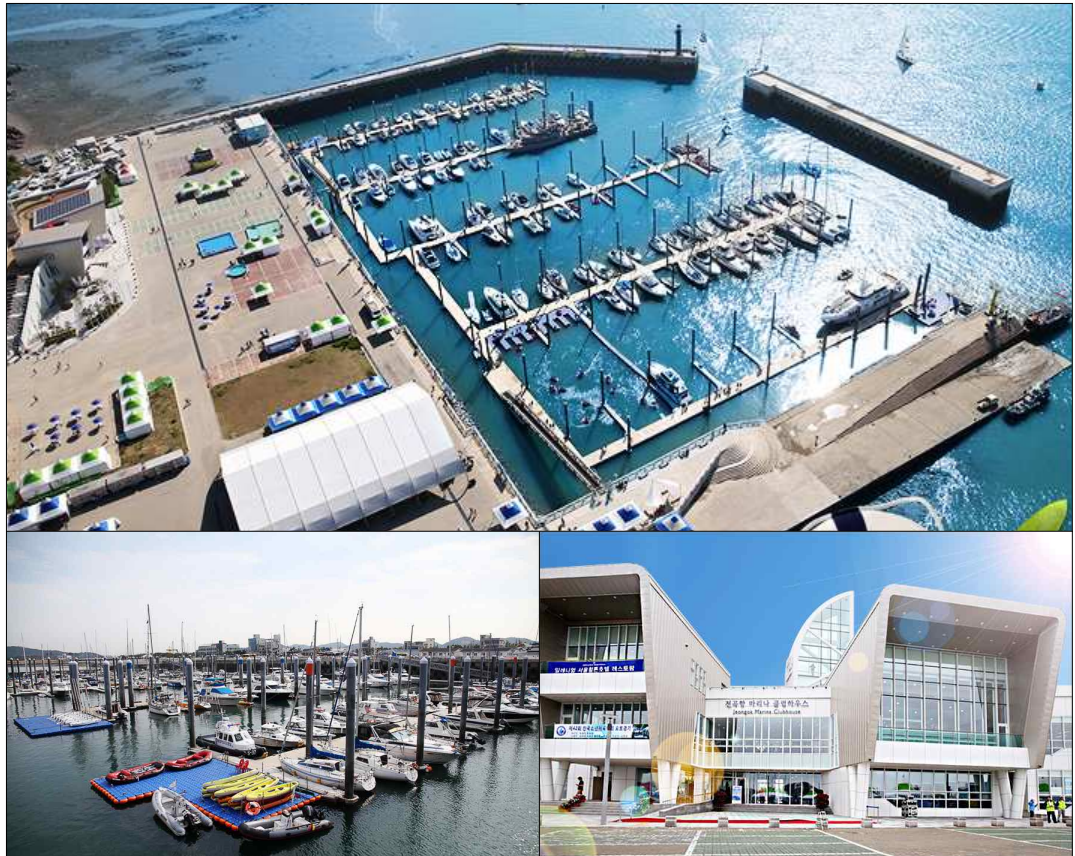
[그림 16] 통영 마리아와 인근 시설 전경



(3) 전곡 marina(전곡항 내 어항편의시설)

- 지방어항인 전곡항 내에 어촌어항법 상 어항편의시설로서 2009년 11월 완공되었으며 총 사업비 467억원(국비 92억원, 지방비 375억원)이 소요됨
- 145척의 해상계류, 55척의 육상보관이 가능하며, 화성시에서 개발하고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음
- 2013년 말 기준, marina 운영을 담당인력은 총 8명이며 계류 및 보관, 수상레저, 유선업(민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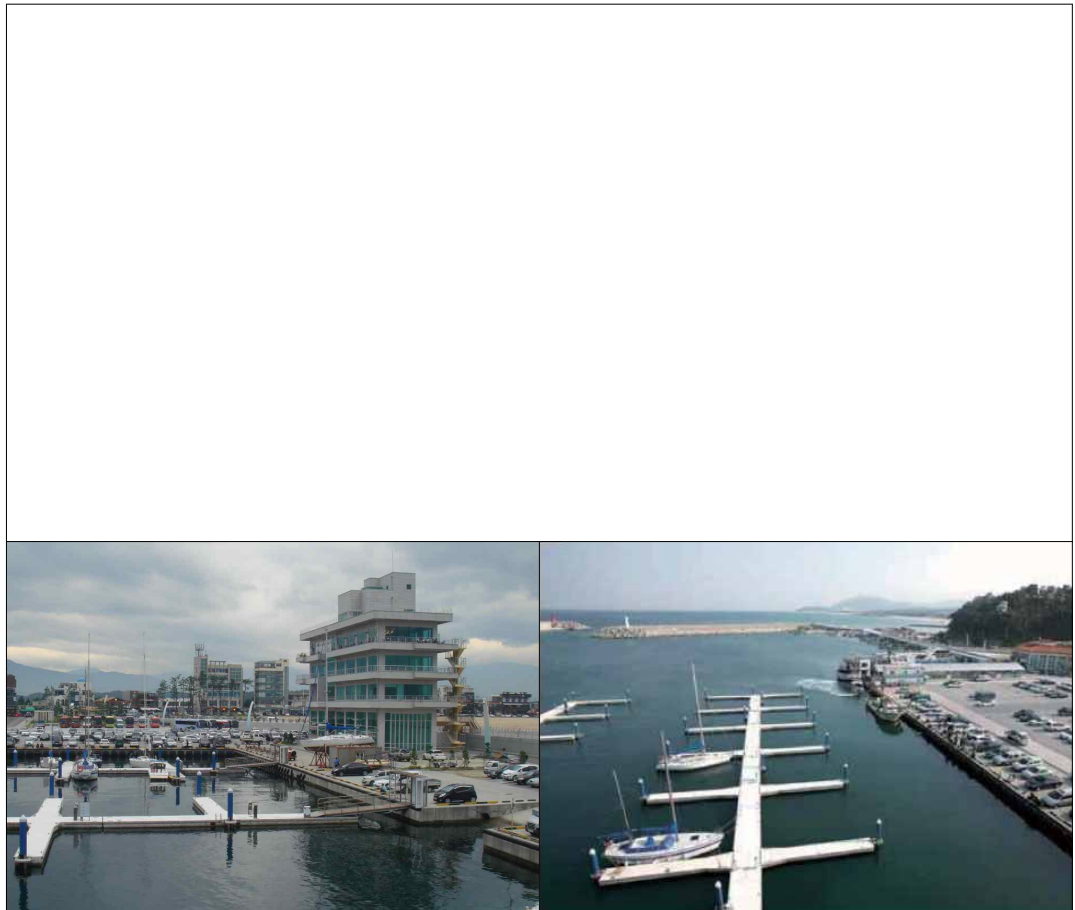
[그림 17] 전곡 marina와 인근 전경



(4) 강릉 마리나

- 국가어항인 강릉항(옛, 안목항) 내에 어촌어항법 상 어항편의시설로서 2010년 개발되었으며, 해상계류 33척이 가능하고 육상보관기능은 없음
- 순수 민간업체인 (주)씨마스터에서 개발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약 30억원이 소요되었고 관리운영인원은 2명

[그림 18] 강릉 마리나와 인근 전경



(5) 수산 마리나

- 강릉항과 마찬가지로 국가어항인 수산항 내 어항편의시설로서 2009년 완공되었으며, 총사업비는 약 50억원(국비 36억원, 지방비 14억원)으로 양양군에서 개발하고 강원도 요트협회에서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60척의 해상계류가 가능하며 강원도요트협회 소속의 전문인력 2명이 계류보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19] 수산 마리나와 인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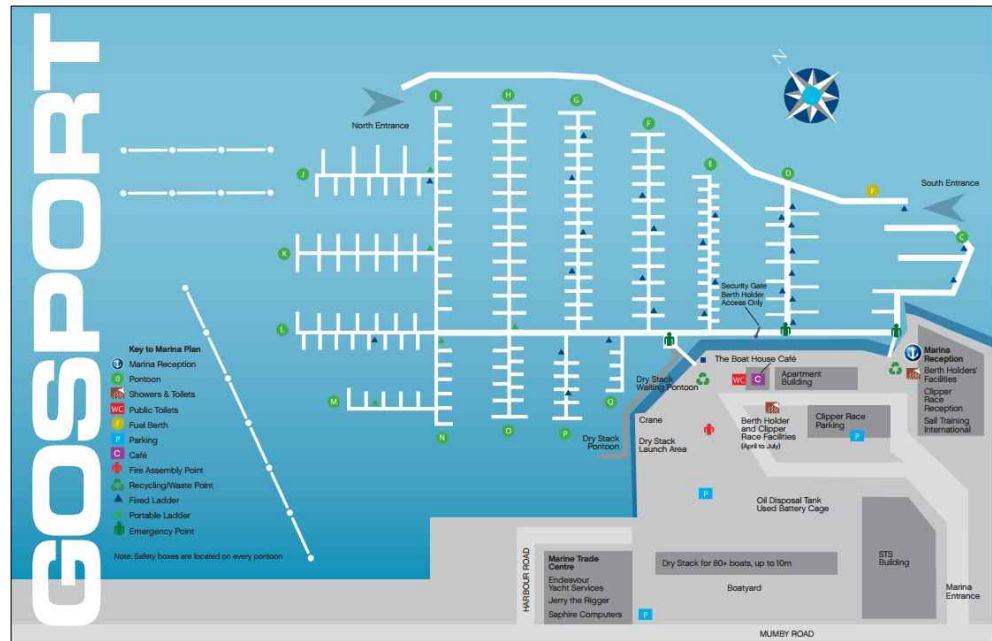


2) 국외 마리나 개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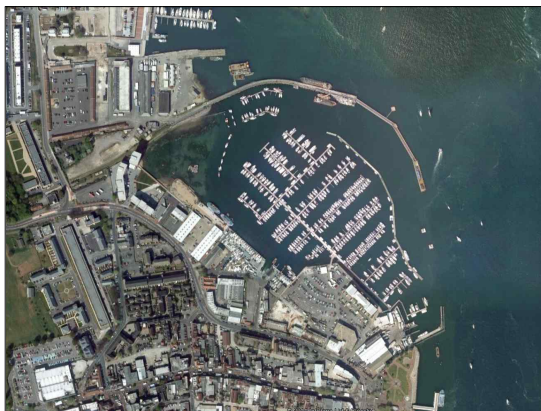
(1) Gosport Marina

- 고스포트 마리나는 영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마리나를 보유한 Premier marinas 주식회사 소유의 마리나 가운데 하나
- 고스포트 마리나는 524척의 해상 berth와 최대 10m 레저선박까지 보관할 수 있는 80척 규모의 육상보관시설(Drystack)을 지니고 있음
- 내부 편의시설로는 샤워/목욕시설과 세탁시설, 카페테리아 그리고 각종 선수용품 취급 상점과 보트매매점 등이 있음. 주변 의시설로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엔진수리점, 선수용품점, 숙박시설 등이 있음
- 연중 365일, 24시간 개장하고 있으며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Sea School(선박조종 및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봄~가을 사이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보트쇼를 개최하고 있음
- 요트와 엔진장착보트는 소형선박수로를 통하여 입항하게 되며, Portsmouth 항만규정에 따라 최대 입항속력은 10노트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
- 인근의 조위차는 약 3.6m 정도로 다소 크지만, 준설을 통하여 마리나 내 수역과 전면 항로 수심을 유지하여 상시 통항에 문제가 없음
- 2014년 5월 현재 마리나 운영인력은 13명으로 계절적으로 다소 변동
 - 현재 매니저 1, 부매니저 2, 고객관리담당 1, 시설담당 및 유지관리 2, 계류담당 4, 보트야드담당 및 스텝 3명이 종사하고 있음
 - 한편 레저선박 자체의 유지보수와 수리업무는 마리나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마리나 인근의 수리전문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나 직접 고용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음
 - 이는 지역에 대한 경제적 공헌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직종별 그리고 직능별 업무가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임

[그림 20] 고스포트 마리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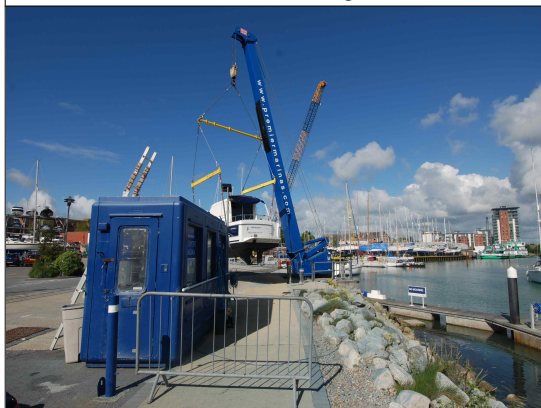
[그림 21] 고스포트 마리나 전경



<위성사진-Google>



<마리나 내 드라이브 전경>



<상하가시설 - 드라이브~해수면>



<접근 보안시설 - Gate>

(2) Shepards Marina

- 1861년 영국과 미국이 요트레이싱을 펼친 Isle of Wight 섬 북측에 위치하며, 이 레이싱은 이후 America Cup의 기원이 되었음
- 인근의 다른 마리나와는 다소 다르게 고무보트(RIB), 모터보트 그리고 트레일러로 이동 가능한 비교적 소형요트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마리나임
- 또한 One-Design된 요트를 사용하는 요트경기나 해양교육과 조종훈련이 많이 이루어지는 마리나
- 간만차가 최대 3.8m에 이르고 소형선박 이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상하가시설로 크레인 뿐 아니라 경사로를 겸비하고 있고, 비교적 해상계류 보다는 육상보관장(Dry stack)이 발달해 있음
- 본 마리나시설은 Cowes Harbour Commission(코우스항만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22명으로 여름철에는 임시직을 추가 고용하고 있음
- 해양활동과 관련된 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이 Shepards Wharf, Kingstone Wharf 그리고 Cowes Harbour Moorings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그림 22] Shepards Marina



- 이 중에서 Shepards Wharf Marina는 본 마리나와 Cowes Harbour Mooring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음
- Shepards Wharf Marina 운영인력은 매니저인 Jock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약 4명 정도의 임시직을 추가적으로 운용
 - 즉 정규직 기준으로 총 7인(매니저 1인, 팀 리더 1인, 계류담당 2인, 마리나 관리 및 Mooring 2인, 접수 등 행정업무 1인)으로 구성되

(3) Port Olympic Marina

-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市에는 광역적으로 6개의 마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도심에서 가까이 위치한 올림픽 마리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올림픽 빌리지와 함께 건설되었으며, 이후로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조와 확장이 진행 중에 있음
- 2014년 5월 현재 해상계류능력은 약 750척이며, 이용률은 약 95% 정도이다. 마리가 건설되면서 바르셀로나 해변은 동서로 나뉘게 되는데, 해변은 넓은 폭의 산책로를 통하여 이어져 있음
- 높고 안전한 방파제 그리고 충분한 수심은 초대형 보트의 계류도 가능하게 하였으며, 마리를 중심으로 내외부에 수많은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극장이 즐비함
-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보트와 요트 임대 가능하며, 주말과 방학 등 휴가기간을 중심으로 요트스쿨이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음
- 초기에는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바르셀로나市에서 전액 투자하여 건설하였으며, 이후에는 민간업체(Pobasa社)가 사업계획서(중장기 마리나 진흥을 위한 투자금 명기)를 市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25년 간 임차하고 있음
 - Pobasa社는 마리나 내 개별 사업체에 건물 운영권을 재임대한 수익과 계류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마리나 전체를 운영하는 Pobasa社의 인력은 약 20명이며, 유지보수와 수리, 주차장 운영 등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음 (마리나 행정 7, 마리나 운영 8, 드라이도크 운영 3, 유지보수 2, 기타 성수기에는 파트타임 인력을 운용).
 - 마리나 내에는 2015년 현재 총 53개 사업체가 있음(레스토랑 15, Bar 9, 뮤직바/디스코바 11, 레저보트 차터업체 15, 세일링스쿨 4, 선수용품점 3, 선박 중개업체 2, 유지보수 및 수리업체 3).
- CIQ와 관련해서는 모든 선박이 입출항 전에 사전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정기적으로(보통 2일 간격) 방문하여 입출항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이지 특별한 내용은 없음
 - 외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사전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입항 전에 바르셀로나 항만 경비선이 정지시킨 후 검문, 검색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 마리나를 떠나서 스페인 내 타 지역으로 이동시에도 이동경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마리나 평면도와 시설개요는 다음과 같음

[그림 23] Port Olympic Marina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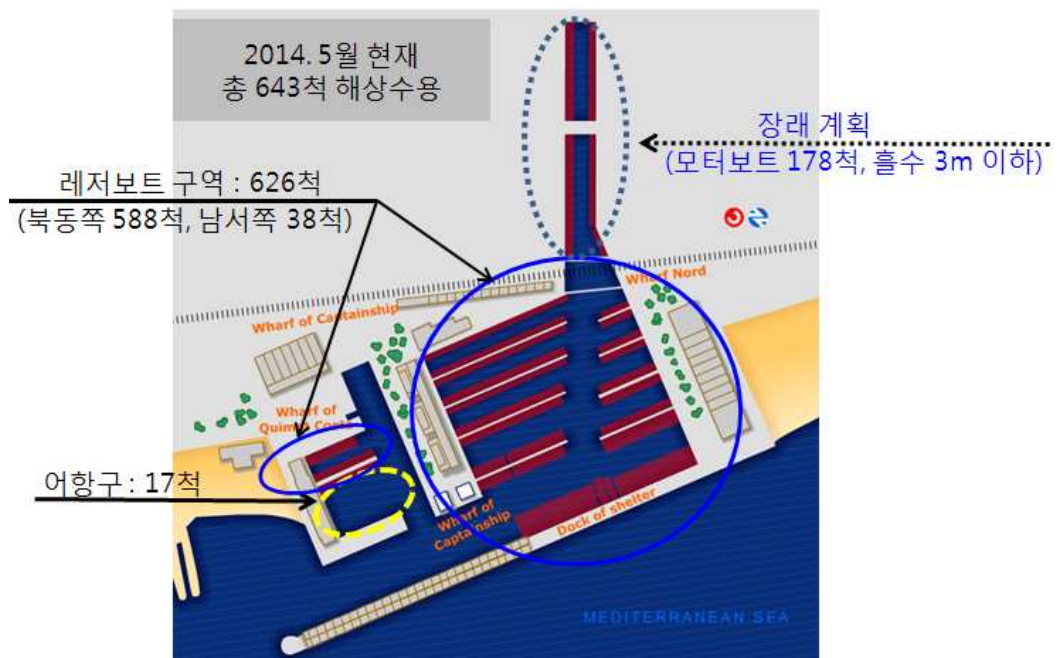


- | | |
|----|--|
| 1 | 740 berths (from 7 to 35 metres in length) |
| 2 | Parking zone |
| 3 | Dockmaster |
| 4 | Dry dock with 2,900 m2 of esplanade/45tn Travelift (max. 20m yachts) / 7-tonne boom (max. 7m yachts) |
| 5 | Fuel / Dock hands point with 24-hour service |
| 6 | Workshops specialising in mechanics, painting, electricity, dockside carpentry, rigging and upper work |
| 7 | Shops providing nautical and auxiliary services for yachts |
| 8 | Schools and charters |
| 9 | Sailing schools |
| 10 | Showers and changing rooms |
| 11 | Lockers |
| 12 | Restaurants and bars |
| 13 | Blue point - selective waste disposal - Grey and bilge water |

(4) Badalona Marina

- 이 지역은 예전에 어선어업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방문객이 줄고,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연안개발과 이용이 증가하면서 쇠락하기 시작하였음
- 이에 2000년 Badalona市에서 100%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마리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지금도 일부는 지역어선이 이용하고 있음
- 당시 초기 투자비는 약 600만 유로였으며, 최종목표연도까지 약 1,700만 유로가 추가로 투입되는 중에 있다. 한편 잔여기간 중 필요로 하는 예산은 건설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마리아개발의 근본적인 목적인 바달로나市의 연안경관개선과 관광객 흡인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으며, Badalona市에서 마스터플랜을 결정하였음
- Badalona 마리아는 보트의 관리와 마리아 운영 그리고 매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한 회사인데, 위탁기간은 30년으로 Badalona市에 계류수입의 일정비율을 납부하고 있음
- 보트수리 등은 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마리아 순수 인원은 13명, 행정지원 인원은 8명으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림 24] Badalona Marina 배치도



- 바달로나 마리나는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함
 - 기존 해안선을 크게 바꾸지 않고 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토공 밸런스를 유지하고자 일부 굴입식으로 계획하였음
 - 해저 생태에 대한 고려와 함께 표사 등의 물리적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해저의 급경사로 인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일부 굴입식으로 건설함

[그림 25] Badalona Marina 시설 및 전경



3) 종합분석

(1) 민자 유치 방안 마련

- 방파제를 비롯한 기반시설 마련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마리나 건설을 정부에서 전액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에 민간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대부분은 마리나를 개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 보다는 마련된 부지를 매각하여 단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를 고려하여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일치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 연고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방안이 필요

(2) 지역 협의를 통한 진행

-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마리나 개발자가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지방정부, 지역주민-레스토랑, 낚시유람선, 선용품점 등의 사업자, 어업활동자 그리고 기존 레저보트 관련 업무 종사자 등)와 오랜 기간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면,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인허가권자인 항만당국 또는 지자체와 협상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절차를 지님
- 우리나라는 마리나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개발사업자와 해당 공무원의 협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어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된 항포구에 계류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어선에 대한 배려가 요구됨

(3) 거점공간 개발과 연계

- 특히 레저보트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마리나시설이 기반시설 역할 및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4)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차별화

- 후발 주자인 충남의 마리나 항만 개발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마리나 항만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필요

4.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 방안

1) 목표 및 추진과제

(1) 목표

- 매력있고 차별화된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
 - 지역별 특색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
 - 거점 마리나를 중심으로한 네트워크화

(2) 추진과제

가. 충남 마리나 항만에 대한 인식 고취

- 마리나의 경우 이용객이 찾아오는 형태로 이뤄지는 분야로서 마리나 항만 개발이 아직 미진한 충남에 대한 마리나 지구로서의 인식 확대 필요
- 이용객 입장에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마리나 항만 이용객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지역의 마리나 항만의 특색별 개발

나. 지역의 특성 반영을 통한 차별화

- 다른 지역 마리나 항만과 비교하여 충남 마리나 항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에 대한 가치 개발
- 지역이 가지는 다양한 자원을 마리나 항만에 접목하여 차별화된 충남 마리나 항만의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

다. 마리나 루트의 개발과 연계성 강화

- 마리나의 특성 상 이동과 휴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남 지역의 마리나 항만의 연계 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시도와의 연계를 통한 루트 개발이 요구

2) 기본방향

(1) 경쟁력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

- 후발 주자인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에 있어 다른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마리나 항만과 차별화된 시설 조성

(2) 지역주민과 연계한 마리나 항만 개발

- 기존 항만을 이용한 마리나 항만 개발에 있어 충남 서해안 항만의 경우 어민들의 생활 터전으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연계를 통해 마리나 항만 개발

(3) 지역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한 특성화

- 충남 마리나 항만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위해 충남 지역 항만별 특색있는 콘텐츠를 가진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하고 마리나 항만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3) 마리나별 개발방안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된 충남의 7개소 마리나와 어촌역 2개소, 기추진 1개소 항만에 대한 특성을 부여하여 상생의 방안 마련

(1) 보령시 - 무창포

가. 개 요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일원
- 대천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9.5km 떨어져 있는 어업활동이 왕성한 지역
- 무창포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관광특구지역으로 무창포~석대도 사이 길이 약 1.5km, 폭 약 30m의 바닷길이 열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인근 해역에서는 꽃게, 보리새우, 쭈꾸미, 가자미 등이 잡히고 있음
- 2014년 말 현재 국가어항 승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개발여건은 양호하지만 무창포항은 물론 주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마리나용 부지 마련과 레저선박의 소요 수심확보에 준설과 매립이 필수

- 마리아 후보지의 위치는 무창포 어항의 방파제 외측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지역은 암반이 발달해 있음

[그림 26] 무창포마리아 후보지(보령시)



나. 자연환경

-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한 무창포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창포 해수욕장의 경우 파랑에 의한 영향이 적고, 백사장 길이가 약 1.5km, 폭 50m, 수심 1~2m, 수온은 22℃, 경사도 4도로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임
- 특히, 매월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을 전후하여 2~3회 해변에서부터 석대도까지 1.5km의 S자 모양의 바닷길이 열려(무창포 모세의 기적 현상, 보령8경 중 제2경), 기암괴석과 해송 등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바닷길을 따라 계, 조개 등을 잡을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 한편, 무창포항은 오천항과 더불어 보령권을 대표하는 낚시배 출항지이며, 방파제에도 많은 낚시객들이 찾고 있음

[그림 27] 무창포항 인근 수심도



다. 인문사회환경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무창포IC와 약 5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자동차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인근으로 충남의 내륙지방인 청양군, 부여군 등과 연결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
- 또한, 무창포 해수욕장은 유명 관광지로,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먹거리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이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는 지역임
- 무창포 해변에서 석대도까지 1.5km의 물갈라짐 현상을 모티브로 바닷길이 활짝 열리는 7월말에서 8월초까지 매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개최되어 조개잡이 대회, 신비의 바닷길 핫불대행진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음
- 또한, 해변도로의 드라이브와 울창한 해송 숲의 아름다움, 주변의 섬들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낙조 등으로 해수욕장의 계절적 한계를 뛰어넘어 사계절 내내 가족단위 휴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음

라. 개발가능성

- 무창포해수욕장 및 무창포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추진으로 주변이 아름답고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지역으로써 어촌 및 해양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해양레저를 즐기는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및 먹거리시설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마린 시설이 개발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 발생이 기대됨

- 무창포항 주변은 이미 관광지로 어느 정도 개발되어 배후부지가 비교적 협소한 편이지만, 관광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고속도로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마. 개발방향 : 어촌체험형 마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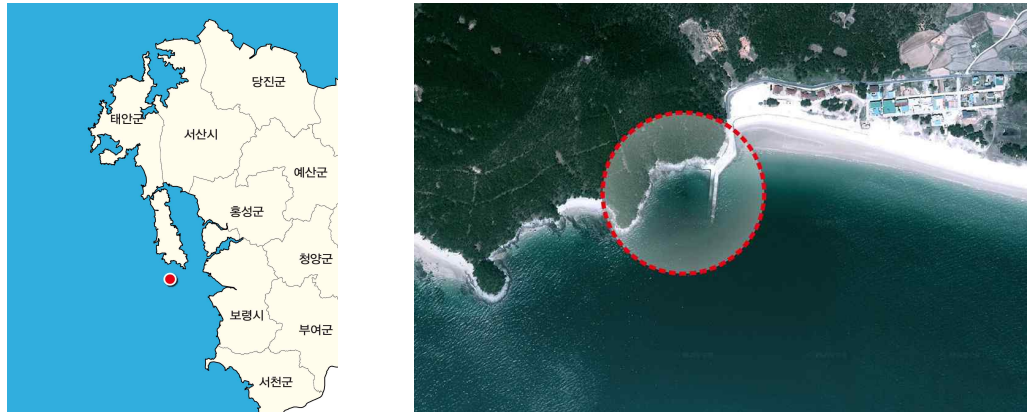
- 어항+마리나+어촌체험+편익시설 등 어촌 오락형 마리나항만 개발
- 4계절형, 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체험, 해상가두리낚시터 체험 등 모티브 및 스토리텔링 발굴
- 지역 어촌 연계형 항만 조성 → 주변 어촌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한 마리나 육성 : 친수공간과 요트 체험, 숙박(휴양)시설 등 마리나 개발
- 어촌체험, 문화, 관광 등 융복합 해양레저타운 조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요트와 어선 등 마리나항만과 정주어항 상생발전 도모

(2) 보령시 - 원산도

가. 개 요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
- 섬 주변을 둘러싸고 전반적으로 갯벌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북쪽은 광활한 갯벌로 레저선박은 물론 어선의 입출항도 용이하지 않음
- 수심조건이 불량하여 keel을 갖는 요트 보다는 낮은 흘수를 갖는 모터보트가 적합한 지역임. 또한 마리나를 추진할 경우에는 섬 북쪽 보다는 남쪽의 해수욕장 인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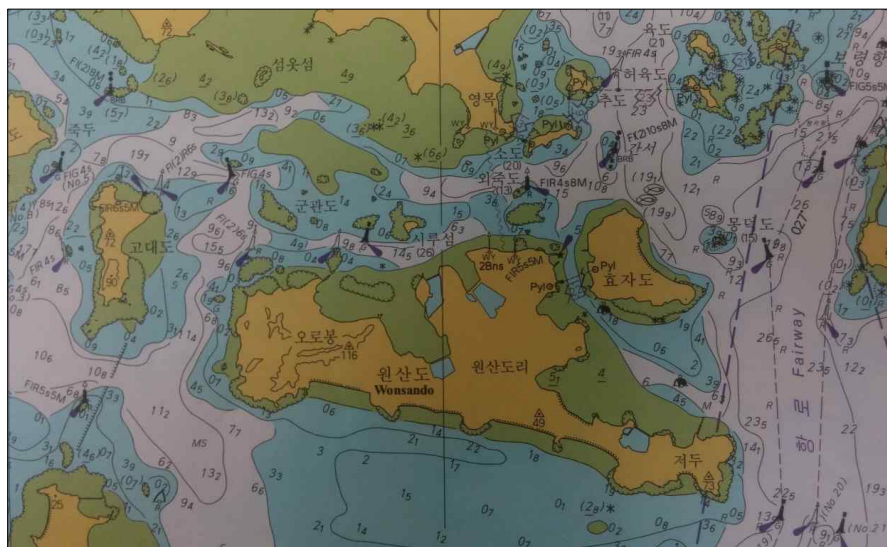
[그림 28] 원산도마리나 후보지(보령시)



나. 자연환경

- 산이 높고 구릉이 많은 원산도 서남측 오봉산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해안선을 감싸고 있어 오봉산 해수욕장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서해안 어느 곳에서 찾아보기 드문 남향이며 고운 규사질의 백사장과 해안선을 따라 푸른 소나무가 13만km²나 자생하고 있는 청정지역
- 원산도는 섬 주변의 긴 해안선을 따라 해식애가 잘 발달되어 있어 각종 해산물도 풍부하고 잘 발달된 암초와 알맞은 수심, 그리고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여밭(암초지대) 등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적합한 지역임
- 다만 섬의 북쪽에는 갯벌지역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암초와 천퇴(淺堆, 얕은 바다 속의 흙두덩)로 인하여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이용편리성이 남쪽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편임

[그림 29] 원산도 인근 수심도



다. 인문사회환경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IC와 약 5km의 거리의 대천항에서 여객선으로 30분 거리, 안면도 최남단 영목항에서 여객선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재 안면도 영목항에서 원산도로 이어지는 연륙교(1.7km)와 원산도에서 대천항으로 이어지는 해저터널(6.9km)이 공사 중에 있어서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 14.1km, 10분 내외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문화관광 자원은 부족한 편이지만 오봉산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원산도 해수욕장, 저두 해수욕장, 사창 해수욕장 등 많은 해수욕장이 있으며, 주변으로 안면도와 효자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등의 도서 등이 위치하고 있어 선박으로 연결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

라. 개발가능성

- 원산도는 유인도서로서 여러 개의 해수욕장과 어항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보령~태안 국도 77호 건설사업(14.1km 구간)으로 보령시 대천항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까지 해저터널과 연륙교로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
- 총사업비 5,4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말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해양레저 인구를 포함한 관광객의 비약적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됨
- 또한 도로가 건설되면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휴양시설 구축과 관광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이 추진되고 있음

마. 개발방향 : 해양레저체험형 마리나

- 마리나+해양레저체험+편익시설 등 복합해양레저체험형 마리나항만 개발
- 4계절형, 해양레저체험, 해양레저교육, 연육교 등 모티브 및 스토리텔링 발굴
- 해양레저체험 항만 조성 → 연육교 건설에 해양레저거점으로 주변 도서 연계를 통한 해양레저체험 마리나 육성 : 친수공간과 해양레저 체험, 숙박(휴양)시설 등 복합해양레저마리나 개발
- 배후에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요트와 해양레저(해중레저 포함) 등 마리나항만과 해양레저거점 연계를 통

한 전국적인 해양레저거점 지역으로 육성

(3) 서산시 - 창리

①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295번지 일원(창리포구 일원)
- 천수만 내측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B지구방조제 갑문 개방으로 전면의 토사가 바깥쪽으로 쓸려 내려가 비교적 양호한 수심조건을 보이고 있음
- 만 내측에 위치하여 방파제를 비롯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크지 않고, 해양교육측면에서 접근할 때도 입지적 특성이 우수
- 또한 한서대학교에서 마리아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 중에 있으며, 배후지 활용성 또한 양호한 편으로 판단됨

[그림 30] 창리마리아 후보지(서산시)



나. 자연환경

-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수만 내에는 파랑 및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정온수역
- 서산B지구방조제를 중심으로 부남호와 천수만이 나뉘고 있으며, 풍속 및 풍향의 변화, 날씨, 기온, 시계, 조류, 지형 및 생태계 등의 자연조건이 마리나 활동을 하는데 적합함
- 수심이 양호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레저 활동은 물론 생태체험과 철새관찰 등도 가능한 지역임

[그림 31] 창리 인근 수심도



③ 인문사회환경

- 수도권, 호남지역, 중부내륙 및 영남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탁월한 지역으로, 서울 남부 중심으로부터 약 120km의 거리에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1시간3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앞으로 내포신도시~태안간 국도계획,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로 접근성 개선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
- 20km 이내에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배후권역인 세종특별자치시, 내포신도시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인

구증가에 따른 시장 잠재력이 풍부함

- 바다목장과 바다낚시터, 해상펜션, 청정해역 해양수산복합단지 등 기존 관광인프라가 양호하여, 현재에도 바다낚시 및 휴식을 위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음
- 간월도의 관광 관련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며 천수만의 철새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서산 버드랜드와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안면도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인접하고 있어 배후 관광수요 및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편임

라. 개발가능성

- 가두리 양식장과 낚시터, 바다목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역주민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음
- 기 구축된 창리 연안바다목장 해상펜션과 더불어 해상낚시 외에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 창출이 가능하며, 창리 인근어선과 더불어 피서리나 형태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서대학교에서 창리 마리나항 조성 투자를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해양레저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해양레저교육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이 우수하다. 해양스포츠학과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일반 시민을 위한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가능함

마. 개발방향 : 해양레저교육형 마리나

- 마리나+해양레저교육+어촌체험 등 복합해양교육형 마리나항만 개발
- 4계절형, 해양레저교육, 어촌문화체험, 바다낚시 등 모티브 및 스토리텔링 발굴
- 해양레저교육 항만 조성 → 주변 가두리 양식장과 낚시터, 바다목장과의 연계를 통해 초보자를 위한 해양레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교육 마리나 육성 : 친수공간과 해양레저 교육, 바다낚시체험, 숙박(휴양)시설 등 해양레저교육마리나 개발
- 주변에 건설 중인 태안레저기업도시와의 연계를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요트와 해양레저교육 등 마리나항만과 어촌지역 문화 및 낚시 체험 연계를 통한 지역 연계 발전 체계 구축

(4) 당진시 - 장고항

가. 개 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장고항 일원
- 2014년 국가어항 다기능고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마리나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32] 장고항마리나 후보지(당진시)



나. 자연환경

- 포구가 자리한 바닷가의 지형이 장고를 닮았다 해서 장고항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우며 북쪽으로는 바로 서해가 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왜목마을과 서측으로는 석문국가 산업단지와 연결하고 있음
- 동양 최대 규모라는 석문방조제 끄트머리에 인접해 있는 장고항은 썰물 때 갯벌이 비교적 넓게 드러나 조개, 굴, 바지락 등을 누구나 손쉽게 잡을 수 있음
- 아산만 내부에 위치하여 파랑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으로 풍향의 변화와 기온, 지형 및 생태계 조건이 양호한 지역임

[그림 33] 장고항 인근 수심도



다. 인문사회환경

- 장고항은 수도권, 경기남부권, 세종권, 충청권과 고속도로 및 국도를 통한 연결교통망이 발달하여 송익IC에서 약 29km 떨어져 석문방조제를 따라 접

근이 가능하며 수도권에서 약 2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함

- 비교적 규모가 큰 포구로 매년 3, 4월에는 이곳의 특색음식인 실치회를 먹기 위해 많은 미식가들이 찾고 있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바다 낚시객들이 즐겨 찾고 있음
- 서해의 별미인 실치를 주제로 매년 4월경 장고항 일대에서 실치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지락 잡기, 바다낚시, 실치로 뱅어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인근의 해수욕장, 도서 등이 분포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지역의 실치축제를 비롯하여 인근의 왜목마을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및 축제와의 연계가 가능하여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가 풍부함

라. 개발가능성

- 지역에 해양레저·해양스포츠 관련 전문교육기관(세한대학교, 한서대학교)이 입지하여 기관과 연계하면 각종 대회유치·체험활동 등 활용성이 우수함
- 장고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완공 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탄생하여 마리와 연계하면 운영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됨
- 난지도해수욕장, 삼교호, 삼교천방조제, 도비도 농어촌휴양지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며 지역관광활성화에 유리한 지역임

마. 개발방향 : 거점마리나 배후 시설보급형 마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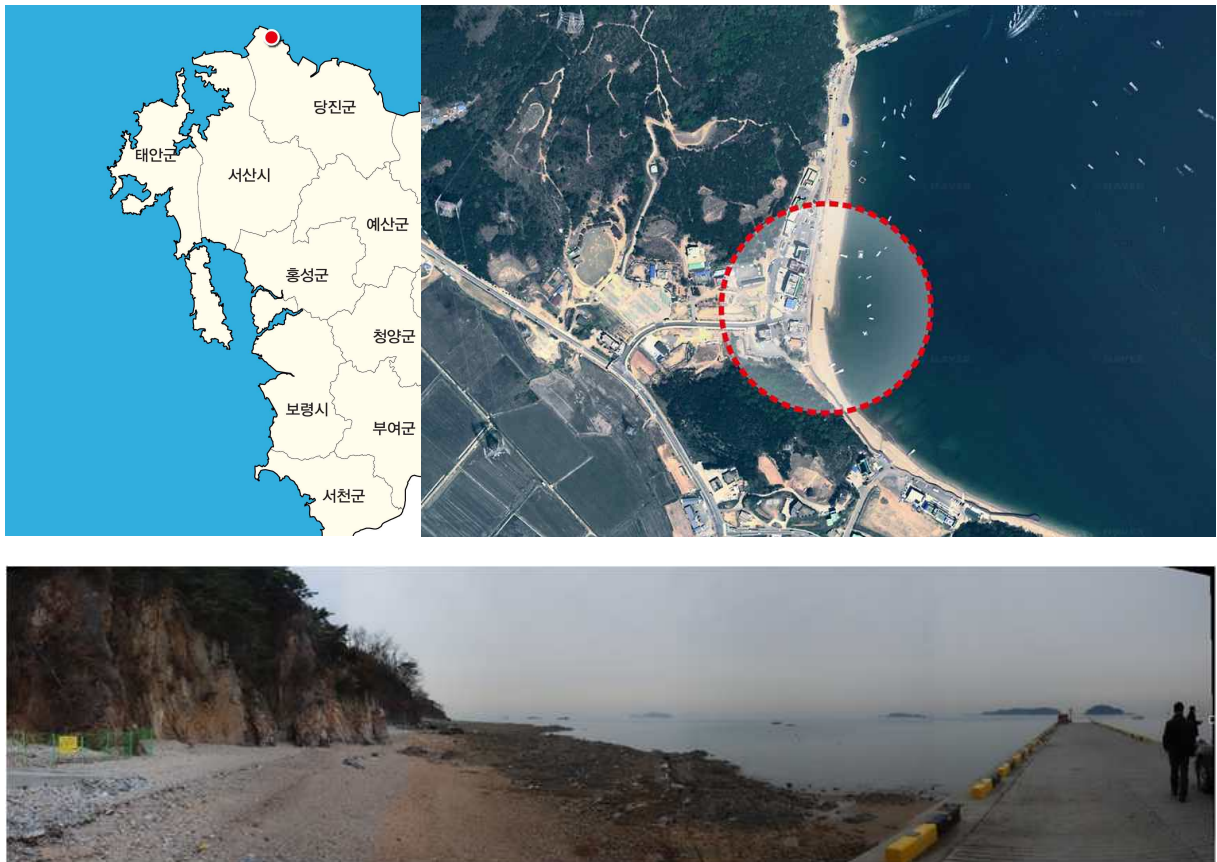
- 거점마리나 배후 지역+해양레저교육+선박수리 등 거점마리나 배후 시설보급형 마리나항만 개발
- 4계절형, 해양레저교육, 어촌문화체험, 바다낚시 등 모티브 및 스토리텔링 발굴
- 거점마리나 배후 시설보급형 항만 조성 → 마리나 선박이나 레저시설의 수리, 보수, 정비, 레저 교육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거점마리나 배후 시설 보급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마리나로 개발
-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와 대회 연습장 운영 등을 통한 마리나 운영 활성화의 방안으로 기대
- 마리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등을 위해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과 자격증 등을 획득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5) 당진시 - 왜목항

가. 개 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전면해상
- 당진시는 제1차 마리아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석문마리아의 대체지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인근 화력발전소의 지역발전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림 34] 왜목마리아 후보지(당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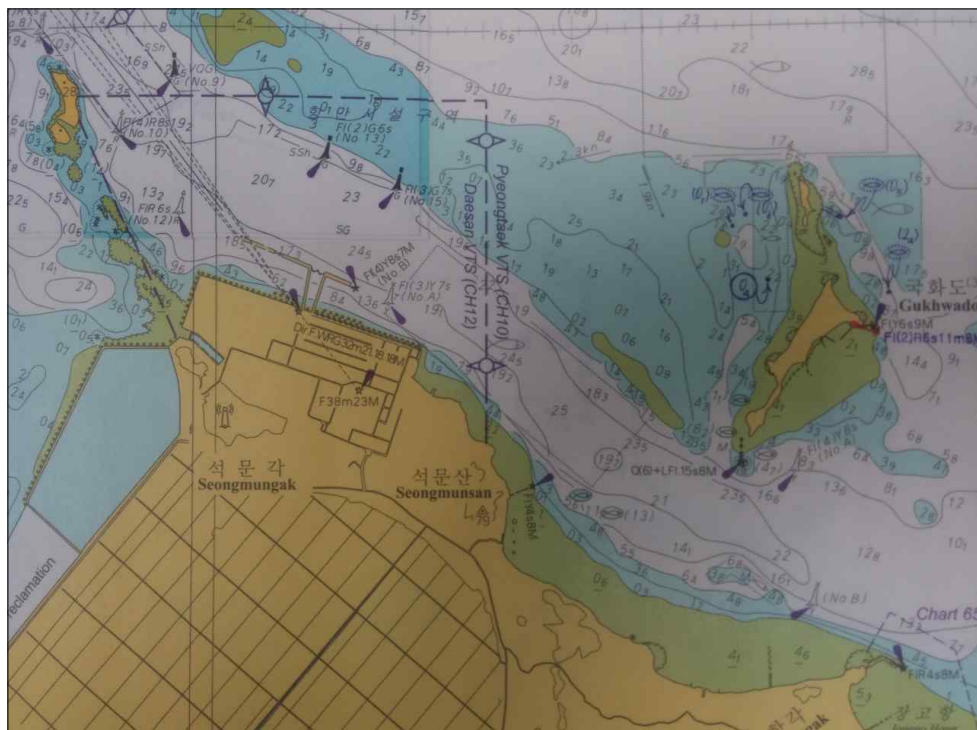


나. 자연환경

- 마을지형이 왜가리 목처럼 가늘고 길게 뻗어나갔다 해서 붙여진 ‘왜목’ 마을은 바다를 동서로 양분하면서 당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음
- 돌출된 해안과 남쪽으로 길게 뻗은 포구의 독특한 지형구조로 인해 일출, 일몰, 월출을 모두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지형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당진9경의 제1경 왜목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해에서 유일하게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일출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음
- 항외 전면수역이 넓어 해상통항이 유리하며 경기도 화성시에 속한 입파도와 국화도 그리고 당진시 난지도 등 해양경관이 우수한 다수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음. 인근에 왜목해수욕장이 위치하여 이를 활용한 교육공간으로의 조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그림 35] 왜목항 인근 수심도



다. 인문사회환경

- 왜목지역은 수도권, 경기남부권, 세종권, 충청권과 고속도로 및 국도를 통한 연결교통망이 발달하여, 약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함
- 주변의 해수욕장, 섬 등이 분포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왜목지역 관광·축제와 연계가 가능하며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임
- 인접하여 왜목해수욕장과 유·무인도서가 10여개가 있어 지역해양관광자원과의 연계가 우수한 지역하며, 서해대교~삼교호관광지~온양온천~당진으로 이어지는 관광축이 형성되어 있음

- 당진화력발전소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등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으나, 유명관광지로 숙박 및 편의시설 확보와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완충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라. 개발가능성

- 인근에 대규모 발전소가 신규로 입지할 예정으로 지역의 기존 관광자원 훼손우려가 있어, 마리나 개발로 완충지대 조성 및 지역발전 견인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정주여향과 같이 개발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 해양레저·해양스포츠 관련 전문교육기관(세한대학교, 한서대학교)이 입지하여, 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대회유치·체험활동 등 활용성이 우수하다.
- 마리나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적극적 찬성과 협조가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 난지도해수욕장, 삼교호, 삼교천방조제, 도비도 농어촌휴양지 등과 연계·개발이 가능하여 지역 관광활성화에 유리하다

마. 개발방향 : 거점마리나 복합마리나항만 개발

- 어항+마리나+체류 및 숙박+리조트 등 복합 마리나항만 개발
- 차별화 → 4계절형 → 미래형 해양리조트(수도권, 충청권역 등) : 요트 세제일주(김승진 선장), 해수욕장, 당진 8경 등 모티브 및 스토리텔링 발굴
- 고부가가치 선진화 항만 조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형 마리나 육성 : 친수공간과 쇼핑공간, 요트 아카데미, 숙박(휴양)시설 등 복합 마리나 개발
- 교육, 문화, 관광 등 융복합 해양레저타운 조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요트와 어선 등 마리나항만과 정주여향(왜목항) 상생발전 도모
- (접목방안)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마리나 루트 개발 활성화 추진
- (마리나개발) 왜목 ↔ 전곡 ↔ 왕산마리나 연계 구축방안 검토 - 왜목, 주변 해양관광자원 풍부, 배후부지 조성 가능 등 발전가능 높음
- (해양관광벨트) 對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벨트 구축방안 검토 - 왜목(마리나, 해수욕장), 장고항(어항, 낚시), 석문방조제(수상레저스포츠)

(6) 서천군 - 홍원항

가. 개 요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국가어항) 방파제 외측
- 비인항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국가어항으로 수산물 유통거점과 해양레저 다기능어항으로 방파제와 안벽 등 기본적인 인프라 개발은 완료되어 있음
- 서해안 어항 가운데 간만차가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간조시에도 어선의 입출항이 자유로운 편임
- 마리아 건설에 따른 다양한 공종 가운데 가장 사업비를 많이 차지하는 기반 시설인 방파제가 완공된 상태로 마리아항만 개발에 따른 추가 부담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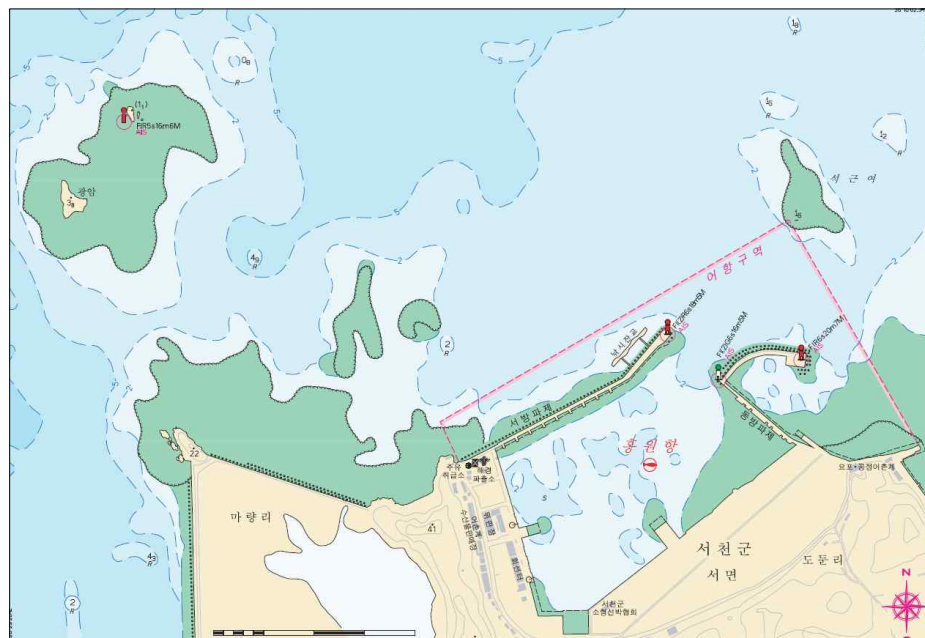
[그림 36] 홍원마리아 후보지(서천군)



나. 자연환경

- 춘장대해수욕장과 동백정 사이 움푹 들어간 만 속에 자리잡고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서해안의 항구 가운데 유독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어 많은 배들이 출입하는 항구임
- 어장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이곳을 찾는 낚시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유명한 항구이다. 서해 주요 어장인 외연도와 연도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육해상 교통이 편리하여 수산물 유통의 적지임
- 지역의 남쪽은 육지이고 북서쪽이 바다로 이루어진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항구로, 서쪽은 약 40m 높이의 언덕이 해안에 닿아 있으며, 이 언덕으로 넘어가는 일몰이 매우 아름다운 지역임
- 연접한 춘장대 해수욕장은 푸른 해송과 아카시아 숲이 무성하고 완만하고 넓은 해변을 갖춰 서해안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림 37] 흥원항 인근 수심도



다. 인문사회환경

- 서해안고속도로 춘장대 IC에서 10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에 서천화력선 춘장대역이 위치하고 있어 예전에는 여름휴가철 임시 관광열차가 운행한 적도 있음

- 서천군 서면 어민들의 중심항인 홍원항은 항구 특유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자아내 낭만여행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며, 매년 가을 열리는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는 서천의 대표적 축제 중 하나로 꼽힘
- 홍원항 마리나 항만과 인접하여 서천이 자랑하는 춘장대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서천해양자연사박물관과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집객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됨

라. 개발가능성

- 요트, 낚시 이용자, 숙박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확보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중이며, 민자유치를 통하여 마리나와 가족호텔, 번지점프장, 다이빙 공간 및 수상카페 시설 등의 조성이 계획되고 있음
- 매년 서천군 4대 수산물 축제 중 3개가 주변에서 개최되며 춘장대, 동백정, 홍원항을 찾는 관광수요의 급증으로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마. 개발방향 : 가족레저휴양형 마리나

- 마리나+해양생태+ 놀이시설 등을 연계한 가족레저휴양형 마리나항만 개발
- 4계절형, 해양생태교육, 해양휴양, 놀이시설 등 모티브 및 스토리텔링 발굴
- 가족 중심의 레저휴양형 항만 조성 →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해양 레저휴양지로 생태교육과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기능으로 하는 마리나로 개발
- 주변 국립생태원 등을 활용한 생태교육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교육, 관광,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지역 파급효과 증대
- 주변 자원과 연계를 통해 여름철 해수욕장 위주의 관광지에서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구성

(7) 태안군 - 안흥항

가.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안흥외항(국가어항) 외측
- 후보지 인근은 수심이 낮고 북쪽으로 열려 있어서 방파제와 준설이 요구됨

[그림 38] 안흥마리나 후보지(태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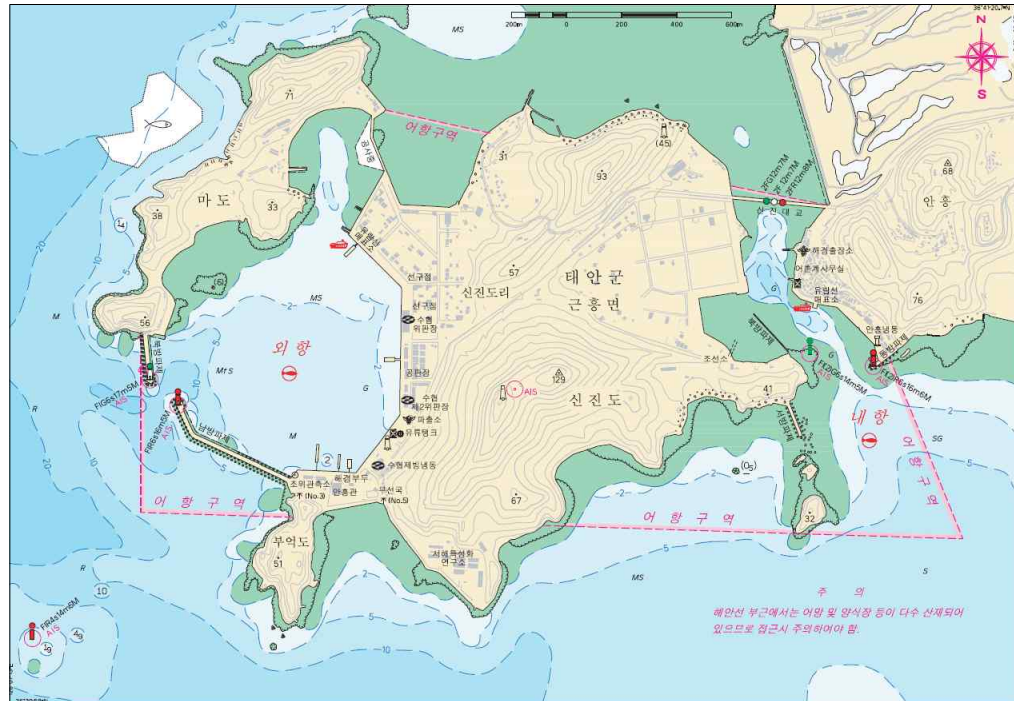


나. 자연환경

- 태안반도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서해바다 먼곳에 돌출되어 있는 지형적 조건과 항구 바깥쪽에는 마도가 위치하여 먼 바다로부터 오는 큰 파도를 막아주고 있어 항구로서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안흥항 앞바다는 물이 맑고 수심이 깊으며 조류가 강하여 어류 서식에 적합한 지역으로 5~7월경에는 우럭 낚시, 7~9월에는 오징어잡이로 수많은 낚시꾼들과 낚시배로 붐비고 있음
- 안흥항 인근으로 신진도, 마도, 가의도, 궁시도 등을 포함하여 4개의 유인도서와 다수의 무인도서가 산재해 있다. 이들 도서는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동백숲과 석란 등의 희귀식물과 천연기념물 334호인 팽이갈매기와 가마우지 등이 많이 서식하여 새들의 낙원을 이루고 있는 지역임

- 원래는 내항이 주항구였으나 신진도를 건너는 다리가 생기고 큰 규모의 외항(현재의 안흥항)이 조성되면서 큰 어선들은 대부분 외항에 정박하고 내항에는 유람선이나 낚시배들이 주로 정박하고 있음

[그림 39] 안흥항(외항, 내항) 인근 수심도



다. 인문사회환경

-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또는 해미IC와의 연결과 태안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 및 남부지역과의 접근성이 2시간 내외로 크게 향상되었음
- 예전에 인천항, 군산항과 함께 서해안 3대 어항의 하나로 꼽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조운선의 이동하는 뱃길에 위치하고 있다. 예로부터 ‘서해의 소금강’ 또는 ‘서해의 실크로드’ 라 불리는 여덟 개의 절경(안흥 8경)과 많은 도서들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방파제 공사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된 상태임
- 내항을 바라보는 언덕부에 태안8경 중 제2경인 안흥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빼어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라. 개발가능성

- 고급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해양레포츠에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안흥항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꽃게축제 및 안흥성, 해양유물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해양관광시설로 적합한 지역임
- 지금의 안흥항은 인지도 측면에서는 시골의 작은 포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서해안 태안을 대표하는 큰 어항으로 많은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수산물 공판장과 수산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낚시객들도 많이 찾는 항구로 마리나 시설 개발을 통해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구로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음
- 서해의 실크로드로 알려진 안흥 앞 바다에 위치한 크고 작은 20여개의 섬은 그 기묘한 경관 때문에 서해의 소금강으로 불리고 있다. 이를 테마로 유람선 코스 개발 및 관광 위락지로 인식되고 있어 마리나를 비롯한 해양레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이 기대됨

마. 개발방향 : 해양레저스포츠형 마리나

- 마리나+해양휴양+바다낚시 등을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형 마리나항만 개발
- 바다낚시, 지역의 역사, 해양환경 등을 활용한 모티브 및 스토리텔링 발굴
- 해양레저객 중심의 해양레저스포츠형 항만 조성 → 고급화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객 유치를 통해 기존 바다낚시객과 고급화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로 개발
- 바다낚시대회와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마리나 메카로 조성
-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해양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계를 통해 지역의 경제효과 증대

(8) 어촌마리나역 - 서산시 삼길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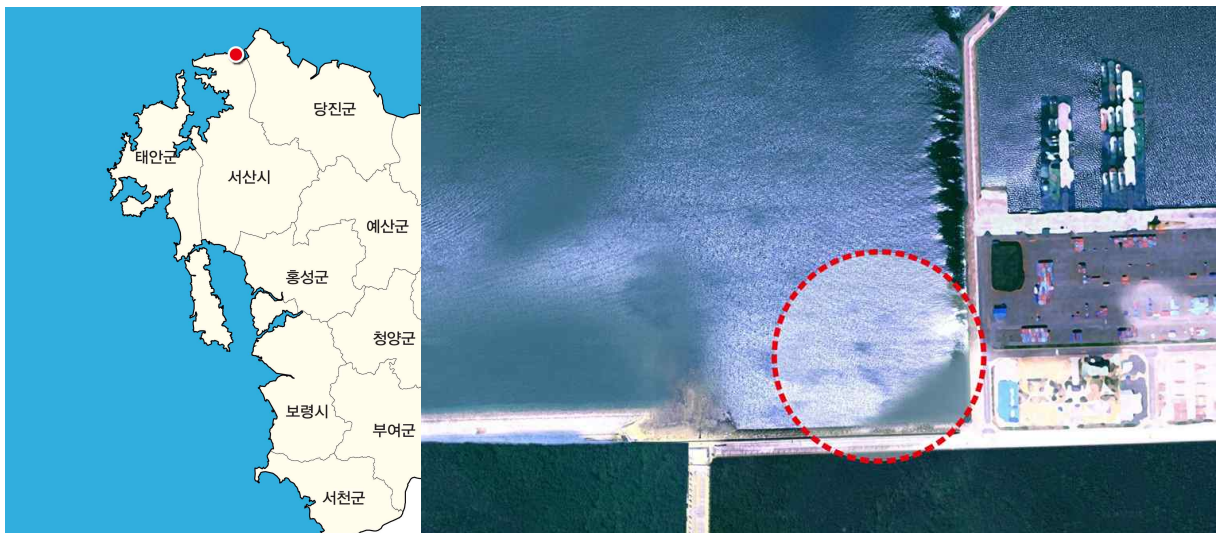
가.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 충청남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간만차를 고려할 때, 레저선박이 이용하기에 비교적 양호한 수심조건을 가지는 등 개발여건이 좋은 편이며, 바로 옆에 삼길포항이 입지하여 방문객으로 인하여 연중으로 관광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나. 자연환경

-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 전면수심은 다소 깊고 간만차는 작기 때문에 마리나 개발을 위한 여건은 양호함. 다만 상산과 특수목적선 그리고 어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안전한 해양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우려는 있음
- 한편 마리나를 이용한 해양활동 자체만을 볼 때는 항외수역이 넓고 수심이 충분하여 해상통항이 용이하고 인근의 난지도와 풍도는 물론 덕적도, 영흥도 등 풍광이 뛰어난 도서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임

[그림 40] 대산마리나 후보지(서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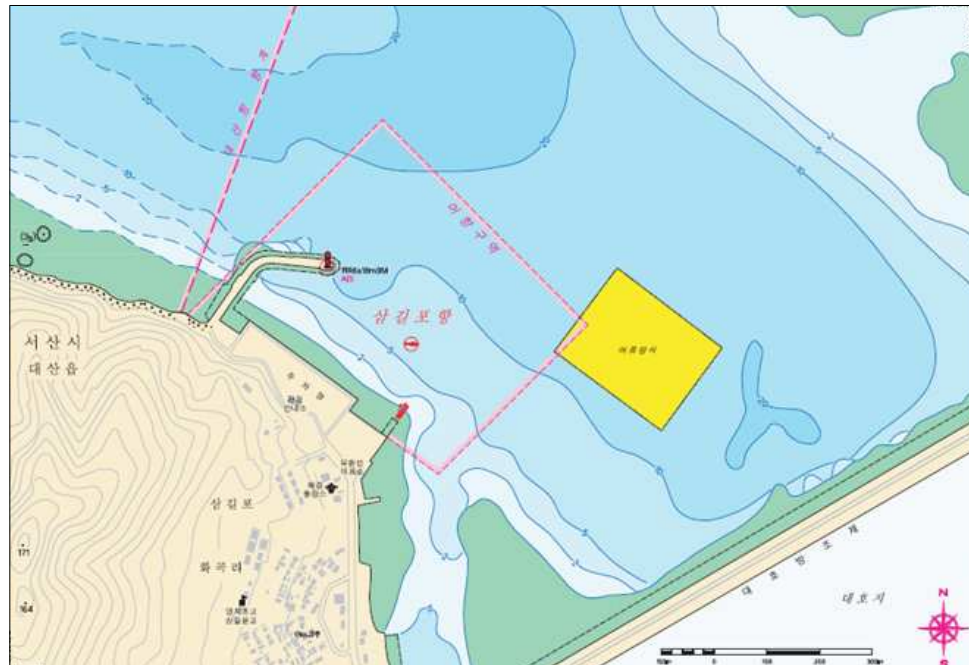




다. 인문사회환경

- 수도권으로부터 약 100km의 거리에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 이용 시 1시간30분대 접근 가능성이 가능하다. 향후 국도38호선 4차선 확장(대산~석문 4km)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24.3km) 등으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인근의 대산항은 서해안 중부권의 거점 항만기능을 위해 종합항만으로 개발되었으며, 국제여객터미널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 주변에 당진화력발전소와 현대오일뱅크 공장 및 대죽일반산업단지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 환경적으로 다소 불리함이 있는 지역임
- 인근에 난지도와 비경도 등의 크고 작은 도서와 도비도 농어촌휴양지와 삼길포항 등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삼길포우럭축제, 삼길포독살체험축제, 해미읍성축제 등 지역축제가 풍성하여 시너지 효과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1] 대산항~삼길포항 인근 수심도



라. 개발가능성

- 대산항~중국 용안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으로 국민적 관심증대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집객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국 국제관광객을 위한 레저 및 여가시설 충족이 가능하므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마리나항만 후보지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매우 근접한 곳에 위치하므로 앞으로 마리나항만이 조성되면 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아산만 건너편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전곡 요트장과 광역적 연계성이 우수하므로 연계 운영시에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
- 또한 삼길포를 중심으로 신선하고 풍부한 수산물이 있고, 횃집 등 상업시설이 배후지에 기 조성되어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어항기반 해양레저 활동의 기반확충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확보 △해상레저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개발방향 : 어촌마리나역(어촌체험 해양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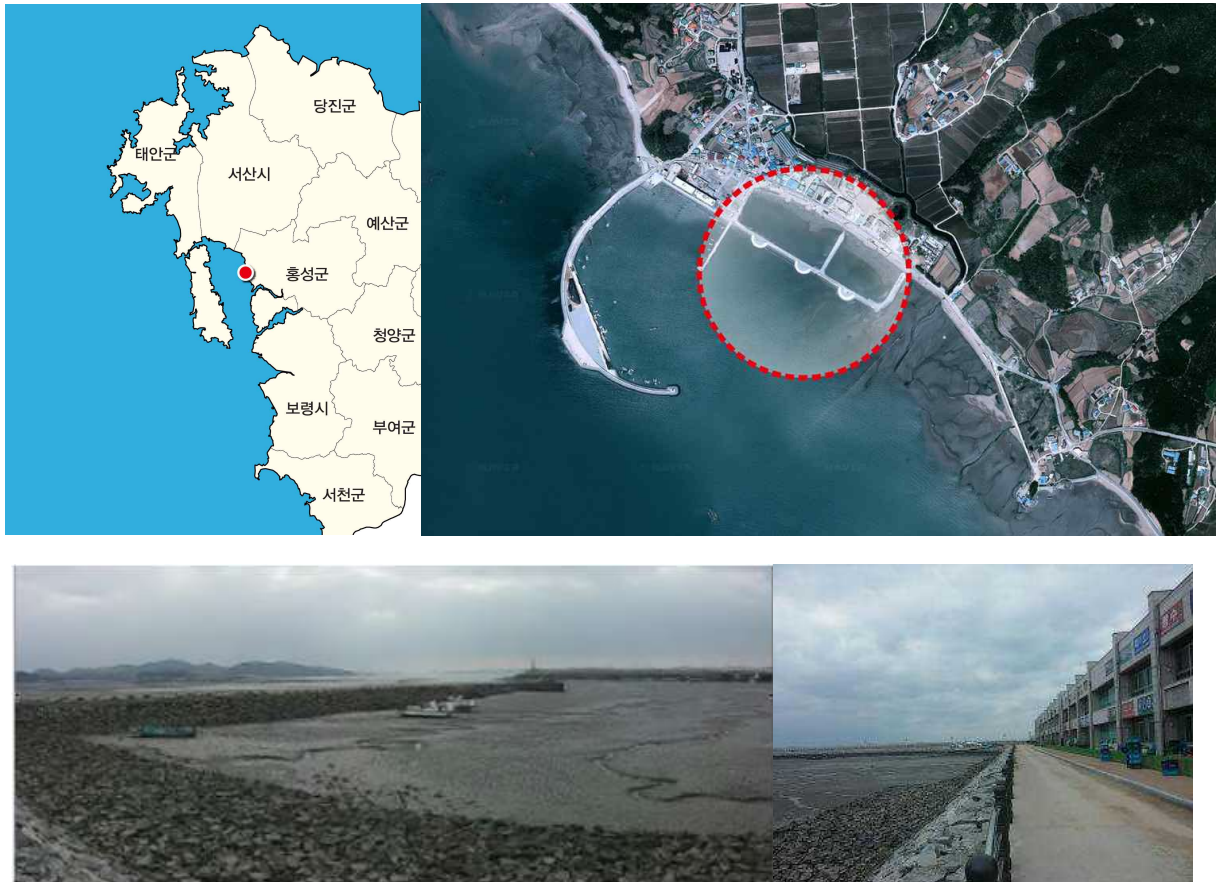
- 마리나+해양레저+어촌체험+해양관광 등을 연계한 소규모 해양레저휴양형 항만 개발
- 해양레저 활동의 기반이 되는 소규모 마리나 시설로 요트를 비롯한 레저 선박의 보급 및 휴식 등이 이뤄지며 선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용하는 해상 간이역 역할을 함
- 기존 축제와 연계한 어촌체험관광과 중국인 관광객 대상 해양레저체험관광지의 메카로 조성
- 어항기반 해양레저 활동의 기반확충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확보 △해양레저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9) 어촌마리나역 - 홍성군 남당항

가.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859-2번지 일원
- 2014년 12월 복합형 다기능어항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음. 도입시설로는 수산물레스토랑, spa, 레저 선박계류시설 그리고 공원 등이 검토되고 있음
- 간조시에는 항내 수역 대부분이 노출될 정도 갯벌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만조시에도 대형선박의 입출항은 어려움이 있음

[그림 42] 남당마리나 후보지(홍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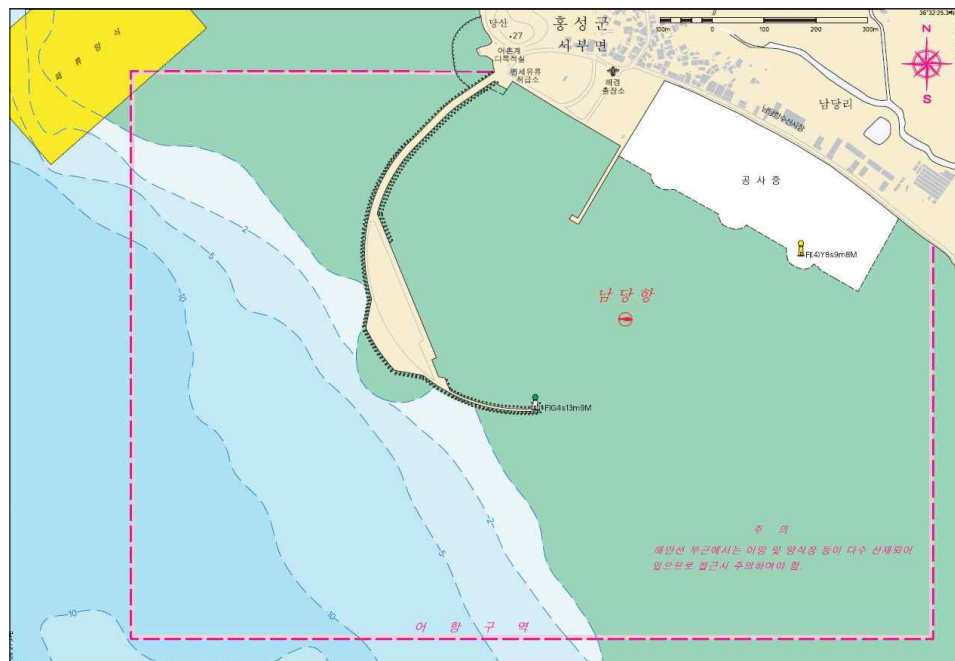


나. 자연환경

-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파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정온수역이며,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지역임

-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우러진 지역으로 배로 10분 거리에 대나무섬으로 유명한 죽도가 있으며 안면도가 눈앞에 가시되는 등 해안경관이 매우 빼어나
- 잔잔한 은빛 수면으로 석양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갯이갈매기 등 철새도래지인 궁리방조제와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피서객들이 낚시를 즐기는 죽도 등 자연경관과 생태보존이 잘 이루어진 곳임

[그림 43] 남당항 인근 수심도



다. 인문사회환경

-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시 홍성IC에서 14km, 광천IC에서 15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국도(21, 29번) 및 국지도(40호), 지방도(96호) 등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우수함
- 철도를 통해서도 서울~홍성이 2시간 내 연결이 가능함(장항선 1시간 간격 운행)
- 충남 서해안의 대표적 수산물 먹거리 관광지로 남당항은 대하와 새조개, 광어, 우럭 등 수많은 수산물이 잡히는 어항으로 어항을 중심으로 많은 횃집이 입지해 있어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고 특히 매년 9월초~10월 중순에 개최되는 남당리 대하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함

-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이 2013년 완공되었으며, 국가어항으로 개발공사가 2014년 완공 예정으로 공유수면매립 및 방파제, 물양장 등 기반시설 조성되고 있음
- 어업구역과 관광공간 사이에 있어서 지속적인 마찰로 이를 해소하고 두 구역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마련이 요구됨

라. 개발가능성

-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배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일진전기 이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며, 또한 인근에 태안 기업도시가 조성 중에 있어 완료시 인구증가로 인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 남당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및 죽도의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추진 및 마무리 중에 있어 향후 마리나 개발과 연계하여 운영이 용이함
- 특히 복합다기능어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문화·관광·레저 복합형 관광어항으로 방파제 및 준설, 공원 및 주차장, 스파(해수탕) 신설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마. 개발방향 : 어촌마리나역(복합다기능어항)

- 수산물먹거리체험+마리나+해양레저 연계한 복합다기능 해양레저 마리나 항만 개발
- 해양관광객 중심의 복합다기능 항만 조성 → 고급화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객 유치를 통해 기존 수산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로 개발
- 천정해역 천수만 수산물의 보고 남당항에 다기능어항 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수산업 중심의 어항에서 해양관광과 레저, 체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충남 서해안지역의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조성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인공어초사업, 어사 해상 바다낚시 공원조성, 수산물 웰빙 체험관 진입도로 개설 등 남당항 주변에 다양한 체험관광 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증대

(10) 보령시 - 보령요트경기장

가. 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590-2번지 일원
- 2016년 아산시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전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방파제 겸 선착장 확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음

[그림 44] 보령요트경기장 후보지(보령시)



나. 자연환경

- 북측에는 남포방조제, 남측에는 용두해수욕장, 동측에는 남포평야가, 서측에는 죽도와 서해안이 위치하고 있으며, 월전리의 서해안은 항외 수역이 넓어 해상통항이 용이함
- 대천항과 무창포항 사이에 위치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웅장한 송림으로 이루어진 용두해수욕장과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남포방조제를 따라 진입경관이 인상적인 지역임

- 보령8경의 하나인 월전죽도가 인접하고 있으며, 월전죽도는 섬을 감싸고 있는 소나무 숲, 아름다운 주변 풍경, 썰물에도 물이 빠지지 않는 자연환경, 어종이 풍부한 천혜의 어장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지역임
- 또한, 용두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의 깨끗한 모래 백사장과 주변에 들어찬 해송으로 충청남도 야생조수 실태 고정조사지로 지정될 만큼 자연조건이 훌륭한 지역임

[그림 45] 보령요트경기장 인근 수심도



다. 인문사회환경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와 무창포IC에서 약 5~10km,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으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등 충남의 각 지역들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하기에 용이함
- 보령 요트경기장으로 기개발되어 충남요트협회에서 요트 인구의 저변확대를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트체험교육 및 선수 훈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인접하여 서해안 최대 규모의 대천해수욕장과 보령머드체험관 등의 유명관

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의 집객에 유리한 지역임

- 또한, 보령시가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인 동백관이 위치하며, 해변 뒤 쪽 울창한 송림과 함께 피서객들의 캠핑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라. 개발가능성

- 대천해수욕장이 사람들로 붐비면서 보령시민들이 즐겨찾는 지역으로 용두해수욕장과 죽도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개발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이 아산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현재 충남도 인근 시·군에 마리나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기조성된 요트경기장에서 해상계류장 조성 및 마리나 기본시설 확충을 통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도모할 수 있음
- 본 후보지는 기존의 요트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마리나 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됨

마. 개발방향 : 요트교육체험형

- 요트교육+해양레저체험+요트대회를 연계한 학생 및 초보자를 대상으로하는 요트교육체험형 마리나 항만 개발
- 해양레저교육 중심의 항만 조성 → 증가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객 유치를 통해 교육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로 개발
- 가족단위 관광객의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요트 교육 및 체험을 통해 해양레저의 주말 가족여행 중심지로 조성
- 또한 지속적인 해양레저 대회 유치를 통해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선수들의 연습장 및 훈련장으로서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
- 주변 해양관광지와 지역 상품 판매장과의 연계를 통해 대회를 참석하거나 체험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4)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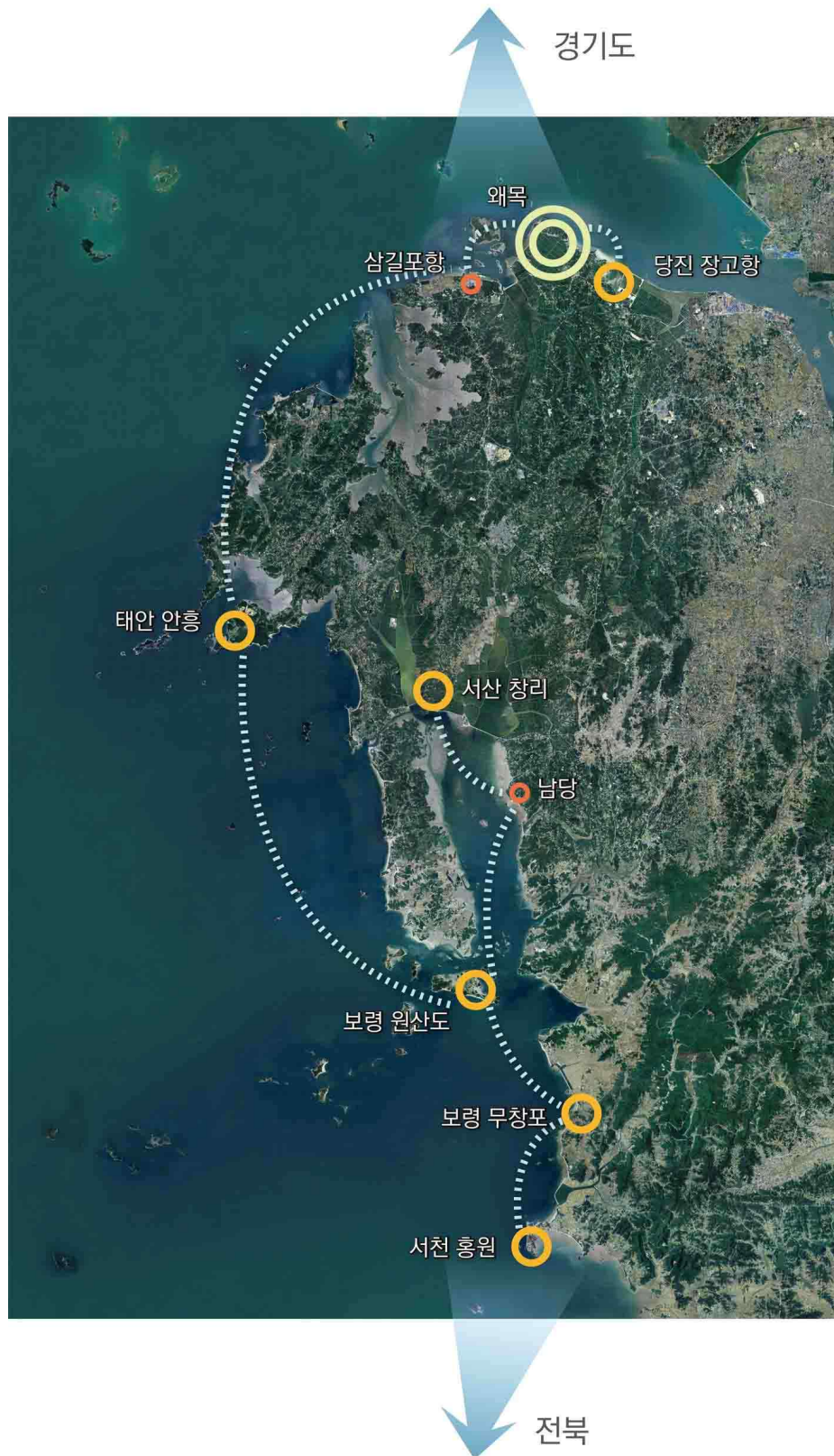
(1) 거점 마리아나 조성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

- 마리아나 수익성 개선(장기화→단기간 회수)을 통한 투자 기반 여건 마련
 - 민간투자 특성 : 투입 자금의 초기(단기) 회수 선호 (보통 : 5~7년)
 - 마리아나 특성 : 시설비 등 투입 자금 회수 장기화 (타 사업보다 수익성 상대적 저조)
-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마리아나 계획 수립
 - 언제, 어디서, 누구나 스스로 찾아오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계획 수립
- 당진시와 협의,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업계획서 보완(변경) 추진
 - 사업 변경에 대한 타당성·논리성 확보 후 해수부 변경 협의 추진
- 타 마리아나 운영 실태 비교 등 수익모델 발굴 후 대기업 제안
 - 도내 입주 대기업(현대제철, 삼성, 롯데, 한화 등) 협의 세부 로드맵 작성
 - 대기업 참여 가능한 수익 모델과 대체사업 발굴 동시 추진

(2) 충남 주변 연계 마리아나 루트 및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마리아나산업 육성을 위하여 레저보트 제조, 운항, 점검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리아나산업단지 및 클러스터를 구축함
- 국내 마리아나항만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다른 권역 거점형 마리아나항만과 연계 및 중국과 연계한 크루징루트 개발을 추진함
- 거점형 마리아나항만과 지역 내 마리아나항만, 소규모 마리아나항만간 개발규모, 도입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개발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
- 마리아나산업 육성을 위하여 레저보트 제조, 운항, 점검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리아나항만 조성 및 마리아나항만 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함

[그림 46] 충남 주변 마리나 루트 연계



[그림 47] 서해안 마리나 루트 연계



(4) 마리나항만의 수익구조 다변화 방안 모색

- 마리나항만 개발컨셉 설정 및 마리나항만 조성단계부터 수익구조에 대한 검토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함.
- 마리나항만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는 배후공간과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마리나항만의 분양(클럽제도)을 실시함.
- 마리나항만의 일정공간은 레저보트 제조회사, 임대회사 등에 분양·위탁관리를 맡겨 고정적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내 마리나항만 조성 및 해양레저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기능·시설 중심의 마리나항만 조성에서 벗어나 해양레저 수요여건과 더불어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공원, 휴게시설, 편의시설)의 마련이 요구됨.

5) 향후 추진과제

- 충남 마리나 시설별 세부계획 및 연계 계획 수립
- 지역별 마리나 시설 단계별 조성
- 지역 마리나 항만별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리나 콘텐츠 개발
- 해양레저스포츠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충남 마리나 항만 홍보
-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 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협의체 구축